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온전한 길을 주심으로 우리가 거할 곳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능력으로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며 생명을 얻는 지혜로 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4-15절

모든 목회자가 강해 설교를 말하기 시작했다

본문에 충실할 뿐 아니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본문을 보는 것이 강해 설교이다

윌터 카터가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확신하기까지는 이 년이 걸렸다. "우리 흑인 교회에서는 말이죠, 부르심을 받으면 바로 즉시 설교할 기회가 생깁니다." 카터도 다르지 않았다. 젊고 카리스마 넘치는 그는 청년부 지도자로 바로 사역을 시작했고, 오래 지나지 않아 일반 성도에게까지 설교할 기회를 얻었다. 신학교를 간 적이 없는 카터의 말이다. "제가 틀리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방법까지 알고 있었습니니다. 하지만 제가 맡은 건 주로 주일학교 공부 수준의 주제였어요. 세 가지 포인트만 잘하면 되는 거죠. 시작을 잘하고, 기발한 예화를 들고, 그리고 결론을 열정적으로 맺는 겁니다." 약 15년 후, 그는 시카고에 있는 Union Tabernacle Missionary Baptist Church의 담임 목사로 부임했다. 위원회 주도에서 장로 주도의 교회로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었던 카터는 Nine Marks of a Healthy Church(건강한 교회의 아홉 가지 지표)라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나는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이 책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첫 번째 지표인 강해 설교는 나의 몫이었습니다."



내내 종일 그의 수업을 들었어요. 다른 사람 클래스는 아예 참석도 안 했지요. 완전히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카터의 그날 경험은 사실상 헬름 자신이 25년 전 영국인 목사 더 루 카스로부터 강해 설교를 처음 배웠을 때 느꼈던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 헬름의 말이다. "내 속에서 전구가 켜진 것 같았지요.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하시려는 명령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단지 배우는 데에 만족할 수 없었던 헬름은 2001년에 그와 몇몇과 힘을 합쳐서 루카스의 원리를 전파하기 위한 Charles Simeon Trust(CST)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전구는 점점 더 많이 켜졌다. "2007년 다시 시작했을 때는 워크숍은 고작해야 10개 남짓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오로지 여성을 위한 주제만 25개를 포함하여 전체 150개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CST의 여성 워크숍 책임자인 폴린 맥패든의 말이다. 워크숍 책임자 케빈 위커

에 따르면 지난 일 년 동안 전 세계에서 6,300명 이상이 워크숍에 참석했다. 거기에 더해, 온라인 참석자도 6,300명에 이른다. 몇 달 전 나이로비에서 모임을 연 개혁파 케나인 크리스 키아기리의 말이다. "여기 와서 이런 경험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카터가 말을 이었다. "나는 우리가 대각성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팬데믹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 쓰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의 필요성을 분별하도록 우리를 떠밀었습니다. ... 그 결과 지금 복음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로 자신들이라는 사실이었다. 요즘 CST 팀은 그것을 "무의식적 무능"이라고 부르는데, 4 단계 교육의 첫 번째 과정이다. 물론 당시에는 휴즈나 헬름도 그런 용어를 쓰지 않았다. 헬름이 말하는 휴즈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성경에 푹 빠진 사람"이다. 헬름은 일리노이 휘튼에 있는 College Church에서 휴즈의 직원으로 일했다. 휴즈와 헬름은 모두 성경 속 하나님의 계시가 설명되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진 모세가 심계명을 설명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계시하셨으며, 바울이 청중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가르쳤던 시절부터 이어진 사실이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설교가 여러 세기에 걸쳐 다양한 수준의 역량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무의식적 무능
CST를 시작한 것은 헬름과 College Church의 켈트 휴즈 목사를 중심으로 한 일단의 목회자들이었다. 그런데 처음에 만 해도 그들이 모르던 게 있었다. 설교에 있어서 정작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



최저임금법이 빈곤층에 미치는 영향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라'

2016년 미국 민주당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고자 하는 요구를 당론의 일환으로 채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제안을 새로운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구제 계획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다. 2021년 하원과 상원에서 민주당원들은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재상정하였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임금을 인상하자는 제안이다. 최저임금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저 시급이다. 많은 주 정부 역시 최저임금법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각 주 및 연방 정부의 최저임금법이 적용될 경우 근로자는 더 높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증가가 사람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도와줄 수 있을까? 최저임금법이 노동자들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지 헤아려 보는 지 진정으로 이해하는 미국인은 거의 없다. 잠언 22:22에서 말해주듯 우리의 제일 관심사는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라"는

것이어야 한다. 교회 지도자들이 이 문제와 그것이 근로 빈곤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여기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야 할 명백한 열 가지 내용이 있다.
1.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주된 주장은 그것이 노동자의 노동 가치를 높인다는 것이다.
노동의 임금 효율성 이론은 높은 임금이 노동자의 이직률과 신규 노동자를 고용하고 훈련하는 관련 비용을 감소시키고,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하도록 하는 동기를 줄이며, 해고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시각에서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까지 소폭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고용에 악영향은 없을 것이다. 임금을 더 많이 지급하면 근로자 만족도가 높아져 이직률이 떨어진다는 가정이다. (12면으로 계속)

		
3면	4면	8면
시론 은희곤 목사	푸른초장 한세영 목사	신앙칼럼 차용호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양)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교회 창립 42 주년 기념

장로 · 권사 · 안수집사

임직 예배

하나님께서 영생장로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33분의 임직예배를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장로장립 박형선 김한보 장인순 이세학 경기욱 장인하 오세진 허만혁 조남수
권사취임 이현주 이수경 서상에 장기백 김순영 이미영 이선우 윤옥정 김금숙 문봉애 나선희 고수지
집사안수 이철수 장건희 안형철 백훈석 구자선 배현수 권민진 홍정길 김유장 채영중 이인선 김재운

일시: 2023년 10월 22일 주일 오후 4시
장소: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제 1 예배실

교회 창립 42 주년 감사

선교사 제3대 목사

재파송 및 위임예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창립 42주년을 맞이하여 담임목사님은 재파송 받고 다시 선교사로 향하시고 제3대 담임목사님 위임예배를 드립니다.

선교사 재파송 백운영 목사
담임목사 위임 정승환 목사

일시: 2023년 11월 19일 주일 오후 4시
장소: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제 1 예배실

발행인 칼럼

메멘토 모리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그리고보니 영화 '퀴바디스'에서 본 적이 있다. 로마 장군 '마커스 비니키우스'가 전쟁에서 개선할 때 온 로마가 열렬히 그를 환영하였다. 그가 탄 마차 뒤에는 장군의 종도 같이 타고 있던 장면이 떠오른다.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모든 개선장군의 마차에는 그 종들이 함께 타고 있었다는데 그들에게 중요한 역할이 있었다고 한다. 온 도시가 찬사를 보낼 때, 그 종들은 개선장군들의 귀에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는 것이다. '메멘토 모리' 무슨 뜻인가. '메멘토'는 '기억하라'는 뜻이고 '모리'는 '죽음'을 말한다. '장군

이여, 메멘토 모리' 곧 '장군이여, 죽음을 기억하시라'는 것이다. 그렇다. 이 세상 부귀영화는 다 지나간다. 분명한 것이 모두에게 확실하 남아있다. 죽음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 9:27) 그렇다. 모든 사람은 이 짧고 의미심장한 라틴어 문장을 자신을 향해 수시로 던져야 한다.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지난 며칠동안 필리핀에 있었다. 필자가 속한 교단의 아시아 선교 대회가 필리핀의 수빅에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두 차례 필리핀을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필리핀의 역사와 선교, 그리고 한국과 필리핀, 미국과 필리핀 사이에 의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더 듣고 배우고 깨달은 시간이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더 역할이 더 기대되는 나라이다. 이곳에도 유명한 죽음이 있었다. 1983년 8월 21일 그 당시 필리핀의 최대 정적이었던 아키노 전 상원의원이 3년간의 미국 망명 생활을 끝내고 귀국하던 중 마닐라 공항에서 암살 당하는 장면을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세계인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때 평평 거리던 권력자 마르코스도 몇 년 뒤에 죽었다.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잘 들어야 한다. 메멘토 모리.

필리핀에 머물고 있는 동안 교회에서 연락이 왔다. 주님과 교회에 평생 충성하시던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것이다. 필자뿐 아니라 모든 교역자 성도들을 세심히 살피셨던 귀한 장로님. 최근에 부쩍 어려워져서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었으나 그의 마지막 날은 본인도 가족도 아무도 정확히 몰랐다. 우리 모두에게 확실한 것 하나가 있으니 죽는다는 것, 그것이다. 성도들도 되새기자. 메멘토 모리.

선교는 순교다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아시아 각 지역에서 생명을 걸고 선교하던 선교사님들이 필리핀에 함께 모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리키면 가는 자들이고 서라시면 서는 자들이다. 그리고 죽으라시면 삶에 대한 어떤 미련도 없이 죽을 자들이다. 삶과 죽음을 통시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선교사들이다. 세상을 구하시러 생명을 던지셨던 예수님을 따라 목숨을 던지는 이들이 선교사님이다. 선교는 죽음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이다. 죽음을 아름답게 준비하고 사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다시 한 번. 메멘토 모리.

우리 교회 제자훈련, 놓친 건 없을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을 삶에서 온몸으로 보여줘라!

제자도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는가? 누군가에게는 커피를 마시며 하는 성경 공부, 또 거기에 기도하고 서로 섬기고 돌봄까지 포함한 모임이 떠올를 수도 있다. 또 누군가에게는 사역 과정에서 수행하는 책임일 수도 있다.

내 신학교 생활은 수업과 관계없이 특히 나를 성장으로 이끈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나는 우리 교인 가정에서 제자훈련을 받았는데, 그들은 진정한 겸손과 인내, 봉사와 친절을 통해서 내게 더 나은 배우자와 부모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인생을 돌아보면, 나는 그동안 교육과 경험만이 아니라 성숙한 성도의 모범을 통해 천천히 제자로 만들어졌음을 깨닫는다. 나는 제자 삼는 모든 사역에 관한 성경적 패턴에는 본받을 통한 이런 식의 성장(formation)이 반드시 포함된다고 믿는다.

일반적인 접근

제자도에 관한 인식은 종종 서방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추구하는 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내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제자 삼는 방법은 크게 다음 두 가지 기본 범주에 포함된다. 하나는 가르침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는 위임을 통한 제자 삼기이다.

교육적 모델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종종 소수의 교사를 통해 제자훈련이 이루어지는 교회 출신이다. 이런 제자훈련은 주로 주일 아침 수업, 비공식 성경 공부, 강해 설교,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경 학교나 신학교에서 일어난다.

누구나 자신이 훈련받은 방식으로 제자 삼는 경향이 있기에, 교육적 모델의 배경을 가진 서양 선교사는 종종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제자를 만들기 원한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기존의 인지적인 접근 방식에 대응하여 또 다른 제자 훈련 방법이 등장했다.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많은 선교사가 위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새로운 신자를 즉각적으로 전도와 교회 개척 사역에 투입함으로써 그들의 제자됨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식민주의(colonialism)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동력을 얻었다.



서양 선교사가 토착 신자에게 가할 수 있는 외부 사상의 강요나 필요 이상의 영향력 주입을 피하도록 하는 데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순수한 교육 모델, 특히 신학교 훈련으로 끝나는 모델은 개발도상국에서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들며 제대로 구현이 안 되는 것으로 이미 입증되었다.

교육 모델이 가진 한계를 인식하는 선교사는 그것을 넘어선 방법을 채택할 뿐 아니라 심지어 비판하기까지 한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섬기는 능력을 지닌 새로운 신자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기에,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순종하는 제자를 삼고자 노력한다.

성경의 패턴

그러나 두 가지 접근 방식이 다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도는 교육과 위임이 다 필요하다. 그러나 온전한 제자 삼는 성경적 패턴은 본받을 포함하기에 단지 이 두 가지 접근 방식만으로는 불완전하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더 나아가 더 넓은 제자 공동체를 가르치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셨다. 또한 짧은 시간 안에 사도들에게 책임을 맡기시므로, 그들이 예수님이 없어도 충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세까지 주셨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요소는 "그와 함께 있는 것"(막 3:14)이다. 복음서 전반에 걸쳐, 하나님 나라 선포인, 귀신 축출이든, 예수님은 사도들

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임으로 알려주셨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에게 꼭 필요한 섬김과 고난을 본보기로 제시하셨다(막 8:34; 10:45). 교육받지 못한 갈릴리인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했을 때,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행 4:13)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가 처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그의 제자임을 세상에 입증할 것이라고(요 13:34-35).

공유 경험과 본받을에 대한 강조는 예수님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제자 삼기에 대한 바울의 접근 방식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생생한 모범에 크게 의존했다(고전 4:17; 빌 3:17). 그는 가는 곳마다 성경을 가르쳤다(교육). 동료와 지역 주민이 자신이 없어도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었다(투자). 그러나 바울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모아 시간을 함께 보냈고, 자신의 사역에 동참하게 했다(행 20:4). 바울은 교회 지도자와 교인이 그를 본받아(고전 11:1; 살전 1:6; 딤후 3:10),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살전 1:7; 딤후 4:12; 딤후 2:7).

바울의 제자도 여정을 관찰한 사람이라면, 제자도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바울은 새로운 신자를 향한 권위 있는 가르침이든, 궁극적인 사역의 위임이든, 계속해서 멘토링 모델을 사용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의 제자 삼는 모든 과정에는 모방이 스며들어 있다.

(15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성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가톨릭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2024년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장학생 모집
밀알선교단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정진하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4년도 다음과 같이 밀알 장애인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수여대상: 밀알장학생: 00명 (대학 또는 대학원을 full-time으로 재학중인 장애인)
제출서류: 완성되지 않은 신청서와 부족한 서류는 심사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됩니다.
1. 밀알장학생: 신청서 (남가주밀알선교단 소정양식),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본인 신앙 간증문 (최소 500단어), 수입증명서 (예: 최근 세금환급(Tax Return),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Pay stub), 고용주의 편지(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경제적 도움을 받는 곳으로부터 편지 등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가지), 추천서 1매 (출석교회 담당사역자 또는 소속학교 담당 지도교수)
2. 꿈나무장학생: 신청서 (남가주밀알선교단 소정양식), 재학증명서,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앙 간증문 (최소 500 단어), 추천서 1매 (출석교회 담당사역자(사랑의교실 주임교사) 또는 소속학교 담당 지도교수)
3. 근로복지생: 신청서 (남가주밀알선교단 소정양식), 본인 신앙 간증문 (최소 500단어), 수입증명서 (예: 최근 세금환급(Tax Return),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Pay stub), 고용주의 편지(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경제적 도움을 받는 곳으로부터 편지 등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가지), 추천서 1매 (출석교회 담당사역자 또는 소속학교 담당 지도교수)
장학금액: 밀알장학금 & 근로복지금: 1인당 \$3,600.00 (매달 \$300 지급)
신청마감: 2023년 11월 30일(목)까지 우체국 직인이 찍힌 것에 한함 (Email 접수 가능)
발표: 2023년 12월 29일(금) 개별통보함
수여식: 2024년 1월 15일(월)
신청 및 문의: 밀알선교단 장학복지위원회 (남가주밀알 사무실)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모든 목회자가 강해 설교를 말하기 시작했다

(1면에서 계속)

“대부분 설교자가 성경을 사용하는 형태를 보면 일종의 주제-교리적 설교라고나 할까요?” 미국 장로교 서기이자 Christ-Centered Preaching: Redeeming the Expository Sermon의 저자인 브라이언 채펠의 말이다. 설교자는 용서, 섭리, 결혼 같은 주제를 일단 먼저 선택하고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과 철학을 조사함으로 일종의 교리 설교를 발전시킨다.

“시사적 메시지가 항상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도 종종 깊고 아름다운 진리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그러나 채펠도 The Gospel Coalition의 공동 설립자인 돈 카슨의 눈에 보이는 것과 똑같은 잠재하는 위험을 본다.

카슨의 말이다. “주제설교에서 당신의 의제를 결정하는 건 다루는 주제입니다. 그 주제는 설교자의 상상을 자극하는데, 현재의 필요 또는 이 주제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죠. 지난 몇 년 동안 팬데믹을 거치면서 ‘정체성’에 관한 설교가 얼마나 많이 선포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20년 전만 해도 그 주제로 설교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현재 논의되는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는 건 유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는 주제의 우선 순위가 성경 말씀의 인도함이 아니라 문화에 의해 더 많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슬프습니다. 이에 반해서 좋은 강해설교는 교인 중에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주제를 놓고도 충분한 성경 자료를 바탕으로 다루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설교자의 사명입니다. 인기 있는 주제로 구성된 설교 시리즈는 거의 항상 성경이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는 일부 주제를 무시합니다. 그런 함정에 빠지는 순간, 설교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아사 상대에 빠뜨립니다.”

지난 세기 동안 많은 교회가 주일 아침 예배는 복음 전도를, 주일 저녁 예배는 성숙한 신자들과 함께하는 더 깊은 성경 연구 시간이었다는 게 카슨의 말이다. 그러나 이런 모델이 하나 간과하는 게 있는데, 죄를 자각하고 용서를 확신하는 기본적인 복음 메시지는 가장 성숙한 신자에게조차도 정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복음이 단지 기독교 신앙의 기초에 해당하는 ABC가 아닙니다. 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전부, A부터 Z까지입니다.” 카슨은 친구 팀 켈러를 인용하며 이렇게 덧붙인다. “어떤 면에서 복음은 모든 것을 포용합니다. 그 포용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다른 나라 최근 수십 년 동안 ‘구도자에 민감한’ 교회가 채택한 모델이다. 그런 교회는 신자와 불신자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쉬운 방법으로 주제 설교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설교자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설교하지 않는다 면, 비록 4, 5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며 수천 편의 설교를 들었다고 해도, 교회가 이사야나 요한복음 또는 로마서가 말하는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신자들이 넘칠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설교는 교인들에게 성경을 읽는 바른 방법을 가르칩니다!” 카슨의 주장이다.

주제 설교에서 강해 설교로

딤후루카스가 1991년 시카고 지역 목사들의 초대를 받고 방문했을 때, 설교의 발전을 감구하던 휴즈와 헬름은 그를 만나러 갔다. 그때까지 루카스는 이미 삼십 년 동안 런던의 St. Helen’s Bishopsgate에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었다. 그의 교회는 부흥했고, 사업가들을 위한 성경 강의도 성공적이었다. 오 년 전에 그는 목회자를 위한 설교 세미나 Proclamation Trust를 시작했다.

“딤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몇 가지를 살펴보고, 켈트와 데이브,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에게 강해설교라는 게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CST의 사역 책임자인 로버트 키니의 말이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단지 사랑에 대한 감성적인 송가 아니라 루카스의 주장이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보면 사실상 그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책임임을 알 수 있다. “딤후는 제대로 본문을 관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의 특정 부분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성경 전체가 풀어내는 논증 전체에 어떻게 이바지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 우리가 하는 설교는 종종 마치 특정 구절을 독립된 내용으로 다루면서 설교했으니까요.” 루카스가 보여주는 성경 관찰 방식은 짜릿하고 생명을 주는 경험이었다고 헬름은 고백했다. 더 배우고 싶었던 그는 시카고에서 세인트루이스까지 가는 다섯 시간 동안 루카스의 운전기사를 자청했다. 단지 그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서였다.

강해설교는 정의하기 어렵지만 동시에 또 쉽다. 가장 기본적으로 말해서, 내가 정한 주제를 뒷받침하거나 설명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찾는 대신에 성경 구절로부터 내용을 뽑아서 설교하는 것이다. 헬름은 강해 설교를 이렇게 설명하곤 한다. “텍스트의 모양과 강조점이 설교의 모양과 강조점을 알려줄 때입니다.” 해당 구절이 원래의 맥락에서 원래의 청중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 메시지를 지금 청중에게 적용함으로써 강해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게 헬름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레위기의 율법어든 요한계시록 속 말탄 사람이든, 일단 그 구절이 어떻게 성경의 요점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의 요점을 먼저 알아야 한다. 성경의 요점이라는 측면에서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목회자에게 폴린 스미스가 제안하는 방법이 있다. “이슬람 모스크나 유대교 회당에서 당신이 설교하면 과연 쫓겨날까요?” “나는 ... 내가 전에 했던 설교 중 일부는 기독교의 내용이 아니라 (sub-Christian)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몇 년 전 Simeon Trust 모임에서 폴린 스미스가 말했다. “특히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한 경우에, 하나님과 삶, 성경, 경건 등에 관해 많은 좋은 것을 말했지만, 그중에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명확하게 인도하지 못한 설교가 꽤 있었습니다.” 따라서 훌륭한 강해 설교는 항상 성경의 요점인 예수님을 가리켜야 한다.

CST 도구의 명확성과 의도성이 “학생들이 정확하고 적절하게 설교하는데 정말로 큰 도움을 줍니다”라는 게 그의 말이다.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은 더 이상 나에게 친숙한 이야기를 엮어 놓은 게 아닙니다. 이 훈련을 통해 전에는 한 번도 만져 본 적이 없는 성경 구절과 레위기 같은 책까지도 다룰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카터의 말이다. 어려운 성경 중 하나가 까다로운 이미지로 악명 높은 요한계시록이다. 카터가 이어서 말했다. “방금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요한계시록에 관한 CST 워크숍을 인도했습니다. 내가 이 시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그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게 그가 목격한 유일한 변화가 아니다. “설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적절하게 설교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눈을 뜨게 된 것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카터의 말이다. 지난 몇 년 동안 그의 회중은 성경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되었고,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그의 설교에 더욱 뜨겁게 반응했으며, 교회가 장로들을 선임하는 데에 관해서도 더 마음을 열었다.

시카고에 있는 카터의 교회는 또 다른 일곱 명을 CST 워크숍에 보냈다.

카터는 고백한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를 적절하게 표현할 단어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일로 인해 내 인생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생각할 때마다 말문이 막힙니다.” 헬름의 말이다. “나에게는 CST와 관련된 모든 것을 압도하는 핵심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같이 미약한 인간에게 어울리는 어떤 영향력이 있다면, 그것은 다 주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그가 사용하는 도구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모든 찬양은 오로지 주님만이 받으셔야 합니다.”

by Sarah Eekhoff Zylstra, TGC

시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은희곤 목사 (평화드림포럼 대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는데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크고 장엄한 나무인 레드우드 (coastal redwood, 미국삼나무)가 숲을 이루면서 공원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삼나무는 충분히 자라는데 400년이 걸리고 수령이 2,000년이 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높이는 91m로 약 35층 건물만 하고 직경이 약 6m나 되는 거목들입니다. 거대한 몸을 지탱하려면 그 뿌리도 깊고 단단할 것 같지만 특이하게도 이 나무들의 뿌리는 1.5~1.8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삼나무는 채 2m가 되지 않는 뿌리를 아래로 내리는 대신 옆으로 뻗어 옆에 있는 다른 나무의 뿌리를 붙잡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맞잡은 뿌리들은 서로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지표면의 습기를 최대한 많이 흡수합니다. 그래서 삼나무는 한 그루만 서 있는 경우보다 군집을 이루어 성장합니다. 게다가 뒤엎긴 뿌리로 함께 성장한 나무들은 폭풍이 와도 쉽게 뽑히지 않고 저항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400년을 자라고 2,000년을 지냅니다. 서로 돕는 지혜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의 힘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퍼온 글) 오늘 지구는 기후문제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으로 곳곳에 재난들이 일어나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강자들에 의한 끝없는 욕망들이 전쟁과 폭거를 일으켜 세계는 다시 신냉전시대 구조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아픔과 위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어느덧 지구촌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2022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의 출산율은 1.34명이고, 저출산·고령화가 심한 선진국들도 1.3~1.8명 수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출산율은 1.6명으로 우리나라의 2배를 웃돌고 있습니다. OECD 국가중 출산율이 1명 이하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포스터는 ‘돌만 낳아 잘 기르자!’였는데 격세지감입니다. 얼마전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저출산 위기와 한국의 미래: 국제적 시각에서 살펴보는 현실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주제 발표를 맡았던 인구학 분야 권위자인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에 대해 “이대로면 2750년에 한국이 소멸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지적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대한민국 국가소멸론’까지 나온다 말입니까? 이는 즉흥적으로 나온 지적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면 콜먼 교수는 이미 17년 전인 2006년 유엔에서 열린 인구포럼에서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 한국은 지구상에서 인구소멸로 사라지는 국가 1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3명이었는데, 그 이후 불과 17년만에 1.13명이 0.78명으로 하락했습니다. 여기에서 합계출산율(合計出生率, total fertility rate, TFR)은 가임(可妊)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입니다. 한국은 1970년에는 4.53명이었는데 이후 1983년에는 대체수준(2.10) 아래인 2.06명으로 떨어졌고 2000년에 1.48명, 2010년에 1.23명, 급기야는 2022년에 0.78명으로 급격한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콜먼 교수는 초저출산의 주된 원인을 “한국은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아 발생한 출산 기피 풍조다.”라고 지적하면서, 초저출산의 해법으로는 “높은 자녀 교육열, 업무 강도, 결혼중심 가족 제도 등 ‘한국적인 것들’과의 과감한 이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과 육아를 부정적으로 기피하며 발생한 ‘초저출산’에는, 콜먼교수의 지적과 더불어 한국사회의 넘사벽 주택,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실업문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교육비, MZ 세대의 육아에 대한 심각한 중압감 등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나온 결과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도 초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16년간 무려 280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조금도 반등없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향후 한국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초저출산 직접 지원 지출’(국내총생산 GDP의 1.5% 정도)인 1년에 30조원(2022년 1,969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젊은 이들의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경제, 교육, 사회적 제반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콜먼 교수는 ‘경제 지원 위주의 초저출산 정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의식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회적·문화적 접근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는데 이에 깊은 공감을 갖습니다. 한국의 국가소멸론까지 등장하게 만든 ‘인구절벽과 초저출산의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가장 앞장서서 진두 지휘해 나가야 할 집권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창조질서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언급한 함께해서 굳건하게 버틴 삼나무처럼 우리가 함께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초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한 지혜는 ‘내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기독교, 교회, 성도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헬렌켈러는 말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작습니다. 함께 할 때 우리는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기독교, 성도들)가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28)

pastor.eun@gmail.com

칼리한인장로교회

청년부 및 행정담당 풀타임 사역자 청빙

지원 자격 :

1. 청년부 사역 경험과 열정이 있는 분
2. 정규 대학과 미국장로교(PCUSA)에서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으로서 전도사 또는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3. 현재 미국 내 합법적인 거주자
4. 나이 30대

제출 서류:

1. 이력서 (사진 첨부) 및 신앙 간증문
2. 최근 설교 (CD, DVD, Web Address)
3. M. Div. 졸업 및 안수 증명서
4. 추천서 2통

접수 마감일: 2023년 10월 31일

* 서류는 이메일(PDF)로 보내셔도 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보내실 곳: Raleigh Korean Presbyterian Church
Attn: Rev. Sanghyun Lee
5408 Duraleigh Road, Raleigh NC 27612

이상현 목사 (919) 455-6500
pastorlee7@yahoo.com
www.rkpc.org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밀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밀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 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 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밀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교회)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부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부흥(Revival)'이란 단어는 접두사 'RE(다시)'와 라틴어 단어 'Viva(산다)'의 합성어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산다. 다시 소생한다. 다시 일어 난다'라는 의미입니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신학자이고 기독교의 고전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저술한 제임스 패커 박사는 '부흥'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생시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멀리 옮기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의 주권을 드러내시는 일이다.' 또한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부흥은 지존하신 분으로부터 찾아오는 것이요 성령의 부으심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흥'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영혼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이미 구원받은 영혼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부흥은 사람이 일으키는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성령운동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부흥은 교회 성장의 도구가 아닙니다. 부흥은 교회의 수, 성도의 수를 늘리는 수단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

먼저, 개인적인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을 상실한 나, 미지근한 신앙과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에 젖어가는 나, 탕자의 비유의 첫째 아들처럼 점점 종교인이 되어 가는 나... 이런 내 영혼의 부흥을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세를 낮추고 철저하게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

히 여겨주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고 내 영혼의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자녀들과 그들이 속한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소생되어 세상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여 그들을 통해 점점 반기독교적이고 비윤리적인 미국 공립학교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셋째로, 가정과 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왕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오바다처럼 정직, 성실, 온유, 겸손, 그리고 실력으로 무장한

일터 그리스도인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우리의 가정이 성공적인 신앙계승을 하는 영적 명문 가정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아스포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오직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교회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쉼기나 영광이 머무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푸/른/초/장

한세영 목사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인생은 현재가 중요합니다. 내가 연로함으로, 혹은 중병에 걸림으로, 남은 생애가 얼마 되지 않았을지라도, 내 생애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나의 현재가 곧 나의 미래이고, 이것이 내가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앞으로 남은 생애를 밝게 바라보게 하는 거짓 없는 소망입니다.

미래는 나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언제 성공하고 싶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현재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루하루를 연명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위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보다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미8군 병원원장을 하셨던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근무하셨던 부대의 모토가 'Aim high'라 하셨습니다. 항상 목표와 이상을 높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능력이나 형편과는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자라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능력도,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을지라도,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성경의 위인들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연약하고 못한 부분이 있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룰 놀라운 사람들로 택하시고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 간혀 살지 마시고 더 높은 이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왜 우리가 현재에 충실해야 하는가'에 대한 몇가지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내가 아

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한글성경을 보면, 13절과 14절이 한문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천국시민권을 받았다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천국시민이 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얼마만큼 노력해야 하느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릴 만큼 노력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는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는 항상 그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킹제임스성경(KJV)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13절)는 말씀은 'You both to will and to do of his pleasure'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로 하여금 의지적이고 자발적으로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나 그렇다는 것입니

이시오,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 이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오직 그 하나님께서 기도과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게 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어떤 성과를 성취하지 못하는 과정의 일일 뿐이라도, 심지어는 단지 시작하는 일일 뿐이라도,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루하루,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신앙 양

그 삶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서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항상 기도와 말씀 생활 가운데,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인지와 판단력은 여러분이 가진 능력과 역량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써의 면모를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 그러므로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는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한 자신을 믿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진 자는 온 우주만물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바울도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으로 무엇이든 두려움 없이 행하시면, 반드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썩어질 현재의 육신에 매여 살거나, 혹은 그러한 육신을 위해 살지 마시고, 오직 영원한 삶을 위해 영혼을 더 가꾸며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자신이 가진 어떤 물질이나 소유나 육체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런 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지 고민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이룬 사람들로 성경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양화전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는데, 묘비에는 이런 글들이 적혀 있습니다. "만일 내게 천사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Ruby Rachel Kendrick) "내가 조선에서 헌신하였으니 죽어도 조선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Josephine Eaton Peel Campbell) "하나님께서 죽도록 충성을 다 하였습니다"(Walter Virgil Johnson)

그렇다면, 여러분의 묘비에는 무엇이든 쓰시겠습니까?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이제부터라든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는 묘비를 써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언제나 순종하며 그분만 따라간다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syhan91@hotmail.com

너희 안에서 행하는 이 빌립보서 2장12절-14절



12절과 13절이 하나로 연결되는 문장입니다. 13절에는 '왜냐하면'이란 접속사가 앞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3절의 말씀은, 성도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 이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며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또한 반드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완성시켜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인한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한순간에 주신 구원의 은혜는 불완전하다는 것일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성도의 신분이나 정체성이 아니라, 바로 성도의 연약한 삶을 향한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순간에 천국시민권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모습은 천국시민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아무 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 존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복종해야 하는 성도들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는 늘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그 뜻을 찾아 그 뜻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모든 일을 열망과 시비가 없이 하도록'(14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붙잡아야 우리의 비전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바라봐야 할 삶의 지표요, 방향이요, 꿈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것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테말라 단기선교 마지막 날, 나눔의 시간을 가질 때,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 년에 딱 한 주간 선교지에 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 생각을 했는데,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고전 3:7)는 말씀을 통해 그 생각을 버리게 되었다'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이도 하나님

심을 통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결과까지도 책임지려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여러분의 지표요, 방향이요, 꿈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것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테말라 단기선교 마지막 날, 나눔의 시간을 가질 때,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 년에 딱 한 주간 선교지에 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 생각을 했는데,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고전 3:7)는 말씀을 통해 그 생각을 버리게 되었다'

셋째, 인생의 방향을 올바르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라는 높은 이상을 가지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려 하신다 할지라도,

어떤 인생도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이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인생의 참된 변화가 시작된다. 말씀이 그를 책망하게 되고 교훈하게 될 때, 인생은 교정되어지고 바르고 온전한 의의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말씀과 기도로 회복된 사람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회복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왕하 18장에 히스기야 왕이 등장한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국보 1호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의 노벨을 '느후스단' 즉, '씻던거리'일 뿐이라면서 그것을 쳐부수어 버린다. 백성들이 그것을 우상처럼 받들어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한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모세의 노벨이 어떤 것인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중에 불뱀에 물려 죽게 되자, 모

그런 조건들에 부합되지 못한 사람이 히스기야였음을 알게 된다. 히스기야 앞에 왕이 누구인가? 아버지 아하스였다. 아하스는 극악무도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아들 중 하나를 잡아다가 인신 제사를 드릴 만큼 악한 왕이었다. 죽을 짓을 한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다.

신앙은 복잡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 죽을 짓을 하고, 회개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결국 죽게 된다. 그렇게 갑자기 아버지가 죽자,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히스기야였다. 그러면, 그런 아버지 밑에서 악한 일들을 보며 자란 히스기야가 어떻게 전혀 아버지와는 반대의 삶,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형통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배경에 특별한 것이 있었는가? 인간적으로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

그러나, 가장 명확하고도 분명한 사실 한가지를 귀납적으로 찾아 본다면, 그것은 그의 삶에

자의 모습이다. 사람 이사를 의지한 것이 아니다. 그를 통해 들려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다.

악한시대, 더욱 강력한 말씀

그의 어머니도 등장한다. 스가라의 딸 아비아이다. 이 스가라는 소선지서에 나오는 스가라가 아닌 또 다른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을 말한다. 스가라의 딸이라는 말이 규정되고 그 이름이 아비아라고 특정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어머니의 신앙과 삶이 온전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게다가, 가장 가까이에서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어머니라고 할 때, 어머니 아비아의 선한 영향력을 그가 경험했음도 분명하다.

한마디로,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엉터리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런 엉터리 같은 아버지 밑에 살아도, 좋은 말씀의 선생님과 엄마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자식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은혜를 끼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이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며, 성전과 밀접하게 삶의 은혜와 축복을 드러낸 사람이다. 앗수르 대군이 쳐들어 왔을 때에, 그는 성전에 가서 항복 문서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그 많은 대군을 한순간에 물리쳐주셨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대로 믿으며, 히스기야의 신앙을 칭찬하면서, 우리 자신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교회로 달려가 올 수 있는 복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이것을 '성전과 교회'의 관점으로 비판하는 이상스런 은퇴 목회자도 있지만, 성경을 신앙이 아닌 신학으로 판단하는 편협된 사상앞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 따름이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목사님 저는 70대 교회 권사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는 말씀을 방송설교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다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셀비치에서 Mr.Han

건강의 비결

A: 좋은 질문입니다. 잠 3:7-8절은 "여호와의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에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건강의 비결이 여호와의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잠 16:24에도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기의 선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양약은 소극적으로는 걱정과 염려를 멀리하는 것이요 적극적으로는 선한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뼈에도 건강이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건강해 집니다. 가령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들을 낳으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성별된 선민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할례'란 요사이 말로 포경수술입니다. 세계에서 자궁암이 제일 적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서 여성들이 건강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레 3장에 말했는데 소나 돼지나 짐승이 죽을 때는 공포에 떨며 고통을 당하다 죽으니가 인체에 해를 주는 아드레날린이나 더 지독한 노르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독소가 피에 들어있으므로 피를 먹지 않는 것이 건강에 좋은 것입니다. 순대를 먹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몸에 좋지 않아 먹지 않습니다. 기름을 먹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씀 하셨는데 사실 기름 특히 동물의 기름은 해롭습니다. 기름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끼어서 마치 파이프가 녹이 나서 막히듯이 막혀서 동맥 경화가 생기고 심장 마비가 생깁니다. 당뇨병에도 기름이 사실 설탕보다 더 해롭다고 합니다. 콩팥이나 내장도 먹지 말고 불에 태우라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요사이는 농약 같은데 들어있는 중금속이나 오염물질이 내장이나 특히 콩팥 같은데 많이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먹지 말아야 할 짐승이나 생선들을 보면 먹으면 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짐승들입니다. 광우병은 4-5세 된 소에서 주로 발생하는 전염성 뇌 질환입니다. 광우병은 프레온이라는 단백질의 변형에 의해 발생하는데 그 증상은 소의 뇌에 구멍이 생겨 갑자기 미친 듯이 포악해지고 정신이상과 거동 불안하다가 방향 감각을 잃고 펄펄 쓰러져 죽는 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나 짐승을 창조하실 때에 평화롭게 풀을 뜯으며 되새김질하는 동물로 만드신 것인데 인간의 욕심이 소를 빨리 살찌게 하고 빨리 키워 돈을 벌려고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임으로 인해 뇌가 구멍이 생겨 이런 끔찍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불순종하며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시 1:2) 여기서 묵상이란 'Meditation'이라는 단어는 약이라는 단어 'Medicine'이라는 어근과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내 골수까지 쫓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내 안의 정신적 육체적 상처들을 치료하는 생명을 주는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치료하는 명약입니다.

성으로 들려지게 될 때에, 마침내 성령의 조명하에 비추어져서 자신의 죄악이 보여지고, 그것을 회개하고 깨끗해졌을 그 때에, 하나님은 그 개인과 가정과 가문, 교회,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매 주일 내 영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어야 한다. 강단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

davidnjeon@yahoo.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말세의 때를 지나는 우리는

-은혜의 변화, 세상을 이기는 말씀의 능력-

세가 노벨을 만들어 그것을 쳐다 보는 이마다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물이다.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 물건인가? 그런 노벨을 단방에 해치워버린 것이다. 아무리 가치가 있고, 사람들이 좋아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헛된 것임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행위였다.

또한 그는 산당을 제거했다. 산당을 제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예전에 한국의 서원처럼 당시 정치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아지트로 여겼던 그런 곳인데, 그것을 파괴해 버린 것이다. 가만히 두면 조용할 일을, 애써 왜 분란거리를 만들었을까? 이유는 단순하다. 하나님이 원치 않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히스기야, 그는 한마디로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어떤 일이라도 좌고우면하지 않는다. 그냥 밀어 부치고 일을 막 저지른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행한 히스기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히스기야를 엄청나게 형통하고 평탄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

환경을 초월하는 말씀의 힘

그런데, 그가 과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사람이었느냐를 생각해보면, 전혀

하나님의 음성이 끊임없이 들려졌다는 사실이다. 들리지 않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는 결코 선한 분별력을 가질 수 없고, 어떤 기준에 따라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악을 이기는 거룩한 방파제

그러면 그의 귀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지게 되었는 것일까?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말씀의 종을 예비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누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종 이사야 목사님(?)이 계셨다. 웃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들의 시대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으며,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들이 그를 통해 이스라엘에 증거되고 왕들에게 교훈 되었다.

그로 인해, 아버지가 아들을 인신 제사하는 그런 환경속에 자랐을 지라도, 그의 귀가에 들려진 이사야 선지자의 음성이다. 그 크고 선명하게 들려짐으로, 악의 오염을 이겨내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 후에도, 그는 항상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자신의 영혼이 살고,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세와 태도이다. 말씀앞에 겸손한

하나님께서서는 그 자녀를 축복하시고, 형통하고 평탄하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을 본다. 어디를 가든지 온전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 한마디로 아버지라는 존재가 주는 환경이 어떠한지라도, 그 자식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축복하시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왜 술을 못 끊느냐? 우리 아버지가 알콜 중독자이기 때문에 내 몸에는 피가 아니라 알콜이 흐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또 부모가 나의 인생을 잘 뒷받침하지 못해서 내가 인생을 구질구질 어렵게 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핑계에 불과한 것이다. 오직 한가지에 순종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히스기야처럼 그 귀가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될 때, 실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은 히스기야에 대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그의 한가지 태도가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된 것이다.

성전을 사랑한 히스기야

히스기야처럼 주님의 교회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 넘어져도 하나님의 교회 쪽으로 넘어질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시대가 수상할수록 더욱 주의 말씀에 자신을 매고, 주의 전을 향해 쉬없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 히스기야처럼 어려운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권세를 넉넉하게 가지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권 안에 머물게 될 것이다.

세상을 향해 말씀을 선포

오늘날 이사와와 같이 온전케 하는 목자의 가르침이 필요하다.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분으로 오해하는 경우 많다. 그렇지 않다. 목회자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는 분임을 알아야 한다. 무엇으로 그렇게 하는가? 말씀이다. 그 말씀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다. 말씀 속에 책망이 들어가고 교정시키는 은혜의 가르침들이 들어가는 것이 합당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목회자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자신의 영혼을 책망하게 될때에, 마침내 그 자신이 교정되어 주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으로 정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세

목회와 선교



여승훈 목사 (남가주보배로교회)

“거룩한 자존심과 긴장감을 회복하십시오”

어제는 미국에 온지 30년 만에 미국 시민권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집을 출발하여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시민권 인터뷰 장소에 도착하였습니다. 건물 현관에서 검열관의 검열을 거쳐서 인터뷰 담당관이 있는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건물 현관에 들어

서면서부터 왠지 모르케 긴장감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는데 인터뷰 담당관을 만나면서 그 긴장감을 한층 더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인터뷰 담당관의 이어지는 질문에 답을 하면서 제 마음속으로는 시민권을 가지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 생길

다고 긴장감을 느끼는 것인지 약간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조성된 시험에 대한 잠재적인 긴장감이 자연스럽게 찾아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린 시절 한국에서 교육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리 작고 간단한 시험이라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본능적으로 긴장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험은 시험을 치르는 사람의 실력이 어떠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사람은 죽고 나면 이 땅에서 살았던 인생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게 됩니다. 시험 결과는 평소애 공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나오듯이 인생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관점에서 인생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판단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비록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불리일으켜 주시는 믿음은 그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인식하게 합니다. 그런 믿음의 인식은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육안으로 보는 것처럼 거룩한 긴장감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시험에 떨어질까 봐 염려되

어서 인터뷰 담당관 앞에서 느끼는 ‘불안’과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순간을 보시고, 아시고, 판단하신다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분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결코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결코 꺾이지 않는 거룩한 자존심과 함께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육적인 자존심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더욱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육적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사활을 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로운 삶은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육적인 자존심은 철저하게 무너지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룩한 자존심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위기 가운데 하나는 삶의 순간순간이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 아래 놓여 있다는 거룩한 긴장감이 살아가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긴장

감을 놓치면 생각나는 대로 살고, 말 나오는 대로 살고, 행동이 나오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브레이크가 터진 자동차로 내리막길을 운전해 가는 것과 같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과 행복한 곳은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살아가기 위하여 거룩한 긴장감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후에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나서 하늘의 시민권을 받게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늘의 시민권을 이미 받았습니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거룩한 긴장감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newsong6364@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 얼라이언스 교단, 여성 목사 안수 문제로 분열

일부 미국 교회들이 여성안수를 허락하기로 한 교단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잇달아 교단에서 탈퇴하고 있다. 지난 29일 크리스챤투데이(CT) 보도에 따르면 미 얼라이언스(C&MA·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교단은 수년간의 논의 끝에 지난 6월 여성안수를 허락하고 여성에게도 목사 직함을 부여하기로 했다. 내부 조사에 따르면 교단 인원 41만4000명 중 대다수인 60% 이상이 여성안수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C&MA는 이전부터 여성이 교회 내 직위를 가질 수 없도록 제한해왔을 뿐, 지역교회의 재량에 따라 여성이 주일 예배에서 설교하고 교회 개척에 파견되는 것을 허용해왔다. 이번 정책을 통해 여성은 목사라는 직분 아래 활동할 수 있게 됐으나 여전히 교회의 장르나 담임목사 등으로는 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단 측은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자매 보배”(롬 16:1) “브리스가”(롬 16:3) “유니아”(롬 16:7) 등 신약교회 속 여성 인물을 들며 “사도바울은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교회에서 여성이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성경의 해석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과거 C&MA에 소속돼 있던 8곳 교회는 이에 “교단이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며 탈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8곳 교회 중에는 조교과적 복음운동단체 ‘복음과도시(TGC·The Gospel Coalition)’ 소속이자 매 주일 1000명 이상의 성도가 참석하는 유명 교회도 있다. 스포츠 앤드루스 목사가 담임을 맡은 노스캐롤라이나 주 얼라이언스 바이블 펠로십 교회다.



인정을 받았다”며 “전자가 이동하거나 에너지를 변경하는 빠른 과정을 측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짧은 빛을 생성하는 방법을 시연했다”고 설명했다. 전자가 움직이거나 에너지량이 변화하는 과정을 측정할 수 있는 극도로 짧은 파장을 지닌 빛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선보임으로써 미시세계 연구의 신기원을 열었다는 것이다. 전자의 세계에선 영 점 및 아도초 만에도 변화가 나타나기에 일반적인 빛으로는 관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100분의 1초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을 셔터 속도가 10분의 1초인 카메라로 찍을 수 없듯, 전자세계는 100경분의 1초 단위로 사건이 변화가 나타나기에 그만큼 극도로 짧은 파장의 빛이 있어야 관측 및 측정이 가능하다. 이들의 연구는 이를 위한 방법을 만들어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수상자인 아고스티니는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크라우스는 독일 막스플랑크 양자광학연구소, 윌리에는 스웨덴 룬드대학 소속이다. 특히 윌리에는 노벨 물리학상 사상 5번째 여성 수상자다. 수상자들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약 13억5000만원)가 수여된다. 노벨위원회는 이날 물리학상에 이어 4일 화학상, 5일 문학상, 6일 평화상, 9일 경제학상 수상자를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생명 위협하는 수준’ 폭우로 비상사태 선포된 뉴욕

미국 뉴욕시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시 곳곳의 도로가 폐쇄되면서 출근 대란이 벌어졌고 지하철 운행 중단, 항공편 지연 등의 피해가 속출했다. CNN, AP통신,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29일 뉴욕시 전역에는 3~6인치(76.2~152.4mm)의 폭우가 내렸다. 뉴욕 브루클린 일부 지역의 경우 이날 오전 3시간 만에 한달 동안 내린 비의 양인 최대 4.5인치(114.3mm) 이상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맨해튼 센트럴 파크에는 1시간 동안 2인치(50.8mm)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이는 80년 사이 2번째로 많은 수치다.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도 1948년 이후 최다인 8인치(203.2mm) 가까운 비가 내렸다. 뉴욕 지하철과 통근철도를 운영하는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 역시 이날 오전 뉴욕 맨해튼과 브롱크스를 연결하는 할렘라인과 허드슨라인 등의 운영을 중단하고 시민들에게 되도록 집에 머물 것을 요청했다. 뉴욕 라과디아 공항은 폭우의 영향으로 임시 폐쇄됐고 출발 항공편들은 집중호우로 인해 100건 이상이 취소됐다. 집중호우로 도로, 지하철 등이 침수되면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뉴욕시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 외 뉴욕주 롱아일랜드, 허드슨밸리 지역에도 비상사태를 내렸다. 호컬 주지사는 폭우에 대해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뉴욕 시민들은 안전을 지키기



영국 명문 대학들이 재정난에 빠졌다. 인플레이션 위기에도 등록금이 10년 넘게 동결된 탓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비를 삭감하고 온라인 강의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학계에서는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美의회, ‘셋다운’ 일단 막았다...45일 임시예산안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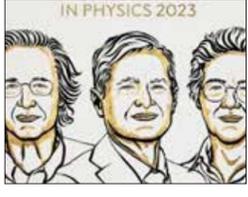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셋다운’(정부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 및 일부 업무 중단) 시점 직전 극적으로 45일간의 임시예산안을 처리했다. 30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의 내년도 예산처리 시한 종료일인 이날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이 45일간의 임시예산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셋다운 사태는 일단락됐고, 여야는 타협점을 모색할 45일간의 시간을 벌게 됐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새롭게 제안한 임시예산안은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찬성 335표 반대 91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의 약 99%인 209명과 공화당 의원의 57%인 12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어 상원은 오후 8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투표를 진행했고 법안은 찬성 88표, 반대 9표로 통과됐다. 셋다운 약 3시간을 앞두고 극적으로 의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임시예산안은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정 직전 서명하면서 연방정부 예산을 동결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화당 강경파들이 요구해온 예산 대폭 삭감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또 공화당 반대가 많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도 반영되지 못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재난 지원 예산 160억 달러(약 22조원) 증액은 전면 수용됐다. 예산안 본안 처리까지 시간을 더 벌게 했지만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야 이견이 분명해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 존 페더먼 상원의원은 표결 직후 “임시예산안 만기일이 도래하는 오는 11월 예도 이 같은 과정이 반복될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여야가 미국 국민 일상과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셋다운 사태를 피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극적으로 처리됐다. 특히 예산 대폭 삭감을 요구해온 당내 초강경파 눈치를 보던 매카시 의장이 민주당 표를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예산안을 제안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지난 5월 바이든 행정부는 매카시 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와 개략적인 예산안 규모에 뜻을 모았으나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대폭 삭감을 요구하며 예산처리를 막았다. 매카시 의장은 전날 11월 중순까지 연방정부 예산을 동결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아 민주당의 지지를 얻었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임시예산안 통과로 매카시 의장의 하원 수장 자리가 위협에 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공화당 내 20여명의 초강경파가 ‘민주당과 손잡았다’는 이유로 매카시에 대한 불신임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매카시 의장은 “누군가가 내가 이곳에서 어른스럽게 행한다는 이유로 나를 몰아내려 한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라”라며 “그러나 나는 이 나라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돈 없다’...영명문대들, 교수진 애고하고 학생수 줄이고



영국 명문 대학들이 재정난에 빠졌다. 인플레이션 위기에도 등록금이 10년 넘게 동결된 탓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비를 삭감하고 온라인 강의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학계에서는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26일 “약 30개의 영국 대학이 가장 최근 학년도에 재정적 손실을 보고했으며 올해 그 수가 세 배 더 늘 것”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24개 명문대학으로 구성된 러셀 그룹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 대학들은 2022~2023학년도에 학생 1인당 2500파운드에 가까운 적자를 봤다. 이 수치는 2030년 5000파운드로 두 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재정적 위기는 정부가 대학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초래됐다. 영국의 대다수 대학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립대학이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결정하는 구조가 아닌 것이다. 2012년 이후 영국 국내 학생 대상 등록금은 2017년에 연간 9000파운드에서 9250파운드(1만1200달러에서 1만1500달러)로 한 차례, 약 2.8% 인상됐다. 고등 교육 컨설팅 회사인 ‘데이터HE’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계산했을 시 2012년 이후 등록금은 약 3분의 1 가량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물가 상승을 그대로 반영했다면 1만4000파운드에 가까웠을 것이라는 게 이 회사의 설명이다. 같은 기간 미국 사립 대학의 등록금은 명목상으로는 40%, 인플레이션 이후에는 10% 가까이 상승해 평균 3만4041달러에 달했다. WSJ는 “지난해 물가가 평균 8% 급등하고 올해 7% 정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학들의 적자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옥스퍼드대 아이린 트레이시 신입 부총장은 지난 3월 열린 고등 교육 세미나에서 “처음 3개월 동안 알게 된 가장 놀라운 사실은 고등교육 부문이 재정적으로 매우 위험하다는 점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학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자체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잉글랜드에 있는 이스트 앵글리아대는 연간 3000만 파운드의 예산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행정직, 교수진을 해고하고 교육과 연구 분야를 축소했다. 요크대는 팬데믹 이후에도 온라인 수업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이 대학 생물학과에 입학한 이자벨 코리(19)는 첫 학기에 6개의 과목 중 5개를 온라인으로 수강했다. 학생들은 대체로 녹화 강의를 시청했고, 교수와 대면하는 일은 극히 적었다고 한다. 반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등록금은 치솟고 있다. 대학들이 이를 통해 부족한 재정을 메우고 있다는 얘기다. 러셀 그룹 대학의 외국인 학생 평균 등록금은 2017년 1만8000파운드에서 2만3750파운드로 올랐다. 유학생 비율도 늘었다. 러셀 그룹 대학 내 외국인 학부생 비율은 5년 전 16%에서 25.6%로 증가했다. 중국 출신 학생 수는 2015년 5만2000명에서 2021년 약 10만명으로 늘었고 인도 출신 학생도 9000명에서 8만7000명으로 급증했다. 대학 관계자들은 외국인 학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경우 대학 재정이 지정학적 요소 또는 정부 이민 규정과 같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취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100경분의 1초’ 시대...노벨 물리학상에 전자역학 연구자 3인

2023년 노벨 물리학상은 ‘물질의 전자역학 연구를 위한 아토초(100경분의 1초) 펄스광을 생성하는 실험 방법’과 관련한 공로를 세운 피에르 아고스티니(70), 페렌츠 크라우스(61), 안 윌리에(65) 등 3명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3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3명에게 노벨 물리학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노벨위원회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세 명은 원자와 분자 내부의 전자 세계를 탐구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를 인류에게 제공한 실험으로



청교도들의 언약 신학 (3)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원로)

II. 청교도 개인 언약 (Personal Covenant before God)

청교도들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음을 주장한다. 이 개인 언약을 통해 자신들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나갔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학적인 기초가 된다. 청교도들의 개인 언약은 그들의 교회 언약, 그리고 사회 언약 (혹은 국가 언약) 의 사상적인 기초가 된다. 청교도들에 의하면 하나님과의 개인 언약의 관계성 속에서 교회 언약 및 사회 언약을 맺게 된다.

개인적 신앙과 개인의 경건한 삶을 통해 영국의 종교 개혁을 단행하려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환경 속에서 청교도 개인 언약 사상이 크게 발전했다.

영국의 메리 여왕의 박해로 제네바에 망명해 있던 크리스토퍼 굿맨(Christopher Goodman)은 국가(사회) 언약을 근거로 해서 메리 여왕에

스(Thomas Wilcox)와 존 필드(John Field)는 영국 교회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거절당했다.

이렇게 청교도들의 국가(사회) 언약에 근거해서 영국 교회 정치 제도 개혁을 여러번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렇게 되자 청교도들은 교회 및 사회 언약의 기초가 되는 개인 언약에 집중하게 되었다. 개인 언약 사상에

도들이었다. 청교도와 왕정 (영국 국교) 사이의 전쟁에서 청교도들이 승리했다. 이 시민전쟁의 결과로 왕 찰스 1세는 처형되었고, 찰스 2세는 추방되었다. 의회파는 잉글랜드 연방을 구성하였고, 1653년에 올리버 크롬웰(Oliver Cromwell, 1599-1658)을 호국경(Lord Protectorate)으로 선출하였다. 크롬웰에 1658년까지 실제적으로 영국을 통치했다. 크롬웰은 철저한 성경중심의 청교도 사상을 실천한 지도자였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영국의 개인 언약 사상이 나중의 (약 40-50년후) 사회 및 국가 언약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청교도들의 판단에서는 영국 국민들 가운데 거듭난 자는 소수이며,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이 많았다. 믿지 아니하는 영국 국민들은 행위 언약(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도록 격려하며, 이미 믿는 국민들은 (당시 청교도들에 의하면 이들은 은혜 언약 가운데 있다) 행위 언약의 율법(주로 10계명)을 통하여 자신의 경건과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함으로 자신이 은혜 언약 가운데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는 칼빈의 예정론을 굳게 믿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사상을 통해 인간의 능동적으로 성도의 삶의 경건과 거룩을 유발시키려 했다. 그는 언약 사상을 통해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했다. 퍼킨스에 의하면,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방편이다. 일반적으로 율법의 용도는 죄를 깨닫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그러나 중생한 성도들에게 율법의 용도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인도하여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 그리고 퍼킨스는 언약 신학을 통해 칼빈의 주권적 일방적인 예정론과 더불어 성도들의 삶에서 경건과 거룩에 이르게 하는 성화를 불러일으키게 한다.

청교도들의 신학적인 기초는 칼빈주의이다. 청교도들의 개인 언약 사상은 하나님과 개인과의 관계에 집중한다. 청교도들의 개인 언약 사상은 크게 두 줄기가 있다. 먼저는 칼빈의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는 일방적(Unilateral)인 언약 사상이며, 그리고 불링거의 언약 사상인데 이것은 쌍방적(Bilateral)인 성격이 강조된 언약 사상이다.

청교도들의 영국에서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것은 칼빈의 주권

청교도들의 시각에는 영국 교회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경적인 경건과 윤리적인 거룩함 그리고 성경적인 삶을 사는 것이었다. 퍼킨스는 개인 언약의 개념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시도했다.

철저한 칼빈주의 입장에서 성도들의 경건과 거룩한 삶을 이끌어 내기 위해 개인 언약의 개념을 사용한 경우는 퍼킨스뿐만 아니라, 리처드 심스, 존 프레스톤, 존 다우네임 등 많은 청교도 지도자들이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과 동시에 언약의 조건을 강조하면서 성도의 언약적인 책임과 임무를 강조하였다. 이들의 개인 언약 사상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인간과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 관계에서 인간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기를 원하신다." 청교도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동시에 그 은혜에 대한 반응과 책임을 대안히 강조했다.

청교도 개인 언약 사상은 알미니안주의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강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반 율법주의에 대항하여 인간의 책임과 자유를 강조하는 양면성이 있다 (이 주제는 John von Rohr의 The Covenant of Grace in Puritan Thought 에 매우 잘 설명되어진다).

KHL0206@gmail.com

청교도 지도자들, 국민들의 개인적 신앙과 경건한 삶을 통해 영국의 종교개혁 단행, 청교도 개인 언약 사상이 크게 발전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과 동시에 언약의 조건을 강조

대한 반역과 혁명을 정당화하는 글을 1558년 썼다. 그러나 성과는 없었다.

에드워드 더링(Edward Dering)은 국가 언약 혹은 사회언약을 통해 엘리자베스 여왕의 잘못과 감독들의 부패 및 권력남용 등을 지적하면서 영국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설교했다. 특히 더링은 엘리자베스 여왕을 다윗을 예를 들면서 영국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당시 영국 교회는 영국 국가와 분리할 수 없었다. 더링은 왕의 역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링의 국가 언약의 메시지는 전혀 열매가 없었다. 왕이 듣지 아니했고, 영국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또한 영국의 장로교회의 아버지라 칭하는 토마스 카트라이트(Thomas Cartwright, 1535-1603)는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영국 교회 개혁을 제안했으나 실패했다. 그리고 토마스 윌콕

는 정치적인 내용을 담지 않았다. 단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생활과 경건 생활을 언약 개념을 통해 발전시켰다.

청교도들이 언약 사상의 방향을 교회 혹은 사회 언약에서 개인 언약 사상으로 전환 시킨것이 먼 미래를 내다 보고 내린 전략적인 방향 전환인가? 아니면 당시 교회 및 사회 개혁을 시도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기에 그들이 개인 언약에 집중한 것인가? 이 문제는 역사 학자마다 다양한 견해가 있다.

왜냐하면 몇 십년 후에 영국에는 시민전쟁(English Civil War, 1642-1651)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개인 언약 사상의 기초가 잘 훈련되었기 때문에, 사회(국가) 언약의 사상의 발로가 되는 시민전쟁이 발생했다. 영국의 시민전쟁은 왕당파와 의회파 간 사이의 내전이다. 1651년 9월 3일에 우스터 전투로 내전은 의회파의 승리로 끝났다. 당시 의회파의 대다수는 청교

적이며, 일방적인 언약의 성격만을 강조하면 인간의 책임을 등한히 여길 수 있고, 개인 경건과 영적인 개혁의 동력이 너무 약했다. 그렇다고 청교도들이 불링거 사상을 선택할 수는 없었다. 결국 청교도들은 우르시누스(Zacharias Ursinus, 1534-1584) 언약 사상을 받아들였다. 토마스 카트라이트, 윌리엄 퍼킨스, 로버트 플라크 등 후의 많은 청교도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율법을 통해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며,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수단과 방식, 즉 믿음을 제시하여 믿도록 하며, 나아가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들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다.

청교도 개인 언약 사상에서는 십계명을 중요한 방편으로 주장한다. 당시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감사한인교회</p> <p>담임목사: 구봉주</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오전찬양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p> <p>Tel: (714)521-08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나성순복음교회</p> <p>담임목사: 진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 오전 5:30(월-토)</p> <p>lajcusa@yahoo.com / www.lajc.com Tel: (323)913-448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남가주든든교회</p> <p>담임목사: 김현인</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회: 오전 6:00(월-금)</p> <p>Tel: (714)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p>남가주사랑의교회</p> <p>담임목사: 노창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평일예배: 오후 1:20 영어권 (장소:KDC, 킹덤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c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흥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정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11:00 세백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p> <p>Tel: (310)719-2244, www.dkc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p>디아스포라선교회</p>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p> <p>대표: 전영자 목사</p> <p>"세게속에 흠뻑 젖어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p> <p>주일예배: 오후 2:30</p> <p>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8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p>미주양곡교회</p> <p>담임목사: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백기도: 오전 5:30(매일)</p> <p>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명안교회</p> <p>담임목사: 임승진</p> <p>주일 1부: 오전 8:30 (영아)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세백기도(화-토): 오전 6:00</p> <p>Tel: (213)381-2202, www.mjc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복음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광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베델한인교회</p> <p>담임목사: 김한오</p> <p>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일일예배: 오후 1:30-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854-4010 / behel@dkc.org / www.bh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p>세계사망교회</p> <p>담임목사: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회: 오후 8:00 세백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213)-235-78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세계선교회</p> <p>담임목사: 김창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매일 마지막 금요일 오후 7:00 세백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213) 388-1927 / www.wmccs.com / worldmissioncenter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p>
<p>실비치 사랑교회 (Seal Beach Sp-Fang Church)</p> <p>담임목사: 이정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참구예배: 오후 6:30</p> <p>Tel: (310)749-4766 실비치 리저널드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1F)</p>	<p>열매교회</p> <p>담임목사: 김요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백예배: 오전 6:00(화-토)</p> <p>Tel: (323)737-3008, Ce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p>엘피스가족원</p> <p>원장: 박순송 목사 (LA복음연합장로교회합동목사)</p> <p>상담사역: (월-금) 오전 10시 오후 4:30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고령성도 여성 리더 3. 약: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 세미나 3. 말씀사역 4. 네트워킹사역</p> <p>www.elpisfamily.org Tel: (213)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p>은혜한인교회</p> <p>담임목사: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2:00 금요성경강화: 오후 8:00 세백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일일예배: 오후 1:30-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714)446-6200, www.graecm.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주님세운교회</p> <p>담임목사: 박성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학교: 오전 11:00 세백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회: 오후 7:20(금)</p> <p>Tel: (310)325-4020, www.juni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p>	<p>주님의영광교회</p> <p>담임목사: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세백예배: 오전 6:00(월-금)</p> <p>Tel: (213)749-4500, www.gc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p>좋은마음교회</p> <p>담임목사: 신원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세백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14)646-9259 www.socalssamsungchurch.org 111W Las Palmas Dr., Fullerton, CA 92835</p>	<p>코너스톤 교회</p> <p>담임목사: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310)530-4040(CH), www.cornestonestv.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토렌스조은교회</p> <p>담임목사: 김우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본당) E M 예배: 오전 9:45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KM 청년예배: 오전 2:00 (본당) 수요예배: 오후 8:00 (본당) 세백예배: (월-토) 오전 5:30 (본당)</p> <p>Tel: 310-370-5500, www.torancejoc.org 198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히비스암교회</p> <p>담임목사: 김덕수</p> <p>주일예배: 오전 11:00 세백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p> <p>수요모임: "어정권이 임하지나" 오전 9:30 오전 9:30 오전 7:00</p> <p>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LA: Tel: (323)665-0009 lchpress@gmail.com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LA: Tel: (323)665-0009 lchpress@gmail.com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신앙칼럼



차용호 목사 (센터빌한인장로교회)

돈이 보물이다 (Money is Treasure)



우리가 한 생을 살다 보면 돈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살아갑니다. 인간의 희로애락이나 다섯 가지 욕심인 오욕(五慾)과 일곱 가지 감정인 칠정(七情)인 오욕 칠정이 대부분 돈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울고 웃고 있습니까.

자크 엘룰(Jacque Ellul) 프랑스 신학자는 "돈은 아무도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했습니다. 돈에 대한 남의 이야기처럼 말하고 인생을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돈은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누구든 자기의 삶이 어떠하며 자기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돈 앞에 서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의 수준과 인격이 드러납니다. 돈 앞에 섰을 때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울려놓는 시험대입니다.

존 화이트(John White)는 "공산주의 유물론은 '돈만이 유일한 존재다.'라고 주장하고, 자본주의 유물론은 '돈만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돈만이 유일한 존재다.'라고 주장하는 공산주의나, '돈만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자본주의가 말의 표현상 좀 차이가 있을 뿐 그 밑바닥에는 돈이 중요하다는 유물론과 물질주의를 깔고 있다는 면에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손에 넣고자 끝없는 탐욕 속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확실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을 자기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높은 것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돈은 안전을 지켜주는 확실한 방패막이로 믿습니다. 돈이 생명과 건강까지도 보장해 줄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돈을 높이니 우리에게 자연히 돈의 횡포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폭군으로 변신해 가고 있습니다. 돈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돈의 힘 앞에 국가도 무릎을 꿇고 돈의 위세 앞에서 법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심지어 돈 앞에서 교회마저 무릎을 꿇는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지켜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라고 말할 땐 돈은 이미 화폐라고

하는 가치의 영역을 뛰어넘는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이미 월권행사를 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돈은 우리의 정신까지 지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가치관까지 마음대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돈은 우리의 전인격을 파괴하고도 남을 수 있고 도덕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세력으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칼막스는 "돈은 최고의 선이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런 사상 때문에 공산주의가 그 머리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사상은 인간이 동경하는 모든 것을 돈을 통해서 가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갖고 싶어 하는 욕망은 끝도 없고 한도 없다고 말하면서 "흐르는 돈은 인간 내면의 저수지에서 결코 넘치는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돈은 아무리 끌어 모아도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돈에 대한 탐욕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이것이 유물사상의 뿌리입니다. 칼 막스의 "돈이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유물사상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과 돈의 밀접한 관계를 잘 꿰뚫어 보셔서 "사람에게 돈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돈이 보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Do not Store up Treasures on Earth)고 하시면서 돈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돈을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마 6:19)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돈을 "보물"이라고 하시다가 24절에 와서 돈이 맘몬이라고 하는 돈의 신인 "재물"로 바꿉니다. 예수님이 돈을 "보물"이라고 하실 때는 돈을 "재물"이라고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

니라."(마 6:24)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돈을 벌 때마다 갖고 싶고 쓰고 싶고 기대고 싶은 심정이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돈을 모으지 말라고 하시고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고 "보물"을 쌓지 말라고 하십니다. 인간에게는 돈을 쌓고 싶은 아주 강한 욕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여다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돈과 사람의 마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네 보물을 그 곳에 있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서 인간이 너무 연약해서 잘못하면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숭배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것도 주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현금 앞에, 돈 앞에 여러분을 세우고 하나님에게 내가 누군가를 물어보십시오.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헛소리요. 바보가 하는 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땅에다가 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돈이 너희들에게 그만큼 보물처럼 소중한가? 그렇다면 하늘에다 쌓아라! 거기가 정말 안전하다!"라고 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마 6:20)

돈을 하나님께 현금으로 드려 하늘에 보물을 쌓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chayongho@hotmail.com

사·모·칼럼



허양희 사모 (텍사스 오스틴 주님의교회)

극한의 몸부림

담임 목회자의 아내로 교회를 섬긴 지 십팔 년이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감사한 일도 많지만, 가슴 아픈 일도 많았다. 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가는 일은 사탄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일이기 때문에 엄청난 힘겨움이 있었다. 대적하는 사람들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며 영적 전쟁을 하는 일은 매우 고단했다.

2006년 7월 첫 주에 지금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남편은 첫 설교를 하였다. 2005년 개인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겠니?'라는 질문을 지속해서 하였고 이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나 명쾌하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2006년 1월이 되었을 때 그 의미를 알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위해 허락하신 교회는 너무도 열악한 환경의 교회였다.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오후 1시 예배를 드리던 교회로 많지 않은 성도가 있었음에도 분열의 상처로 아파하고 있던 연약한 교회였다.

하나님은 우리가 청빙 제안을 받기 일 년 전에 '순종할 수 있겠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담임 사역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몇 년간 기도해 오던 곳과는 전혀 다른 곳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곳에 있는 성도들의 영혼을 안타까워하시며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던 우리 부부에게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기를 원하셨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무작정 순종하기만을 요구하지 않으셨다. 순종하면 축복하겠다는 약속을 주시며 응원해 주셨다. 이 약속은 십팔 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행형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도착한 오스틴은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의 쾌적한 날씨와는 사뭇 다른 습도와 열기가 숨을 막히게 하는 곳이었다. 날씨도 도시 여건도 교회도 모두 생경한 곳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우리를 믿고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겼다. 우리들의 부족함에도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건강한 교회로 양적, 영적부흥을 허락하셨다.

하지만 교회와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은 반감치 않은 많은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것에 기도로 맞서며 뚝고 지나가도록 하셨다. 그것은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게 하는 무척 고된 훈련이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죄 된 본성을 말씀에 순복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곳이 교회이다 보니 그 과정에는 다양한 종류의 죄 된 모습이 드러나 서로를 아프게 찌르기 때문이다.

특히 애매한 말로 우리를 공격하며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일은 정말 힘이 들었다. 본성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말씀에 순응시키며 행동을 선택하는 일은 내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극한의 몸부림이었다.

지나온 십팔 년의 시간은 극한의 몸부림을 하는 시간이었다. 자연인의 본성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선한 자국을 마음과 삶에 남겼다. 자발적 순종을 원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온 우리를 하나님은 다양한 삶의 영역에 복을 주시며 응원해 주셨고 이 순종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순전한 향기임을 마음에 새기게 했다.

yanghur@gmail.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NY, NJ, and Hawaii. Includes church names, pastors, and contact info.

목회서신



김창섭 목사 (세계선교교회)

‘요리사가 칼을 갈듯이’

한 유명 요리사의 다큐멘터리...

이가 너무나 짧아서 ‘왜 이렇게 짧은 칼을 쓰십니까?’...

는 칼이 그렇게까지 짧지는 않았는데, 너무나 오래 쓰다 보니...

또한, 그렇게 유명하고 높은 위치에 오르면 자기가 칼을 갈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에게...

이 요리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요리사의 칼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맥이 통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다.

아무리 크고 비싼 성경책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성경책을 내가 읽고 내가 묵상하여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성껏 칼을 연마하는 요리사의 다큐멘터리를 본 후에, 우리 집 주방에 있는 칼을 한 번 살펴 보았다.

주방에 있는 칼이니만큼 최고급 요리사가 연마한 칼에 비할 바가 못되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한다.

하지 않으면 쇠덩어리에 불과하다. 좋은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칼을 잘 갈아야 하듯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예리한 검인 말씀을 또 새기고 묵상하는 방법 밖에 없다.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는 예리한 칼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셨다.

wmclakim@gmail.com



2023밀알의밤에서 메인게스트 김영철 씨가 간증하고 있다

2023 밀알의 밤 ‘We are Family’ 성황

“삶의 영역에서 지경이 넓혀지고 기도가 응답되길”

2023 밀알의 밤이 9월29일(금)부터 10월1일(주일)까지 ‘We are Family’라는 주제로 열렸다.

말했다. 이어 이날 메인게스트인 개그맨 김영철 씨가 무대에 올라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내셨으며 순간순간 유머러스한 표현으로 청중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그는 “방송프로그램을 하나를 하고 있었는데 선배들의 권유로 방송을 열심히 했더니 프로그램을 한개 두개 더 하게 되었고 라디오 DJ까지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취율에서 가장 인기가 있던 컬투쇼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되었다”고 말

하며 “나의 꿈은 2013년 캐나다 몬트리올 코미디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영어로 청중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것이었고 2003년 9월부터 지금까지 매일 영어공부를 하고 있다”며 “비록 2013년 몬트리올에 가지는 못했지만 2016년 호주 멜버른 코미디 페스티벌에 참가하게 되었으며 현재 미국기획사에 멜버른 코미디 페스티벌 참가경력을 비롯한 코미디언 경력을 제출한 상태이다.

그는 “지금까지 살면서 잘한 것은 영어공부를 계속하는 것이었지만 신앙인으로 가장 뜨거웠던 시절은 2011년 성지순례를 갔을 때이다. 당시 서울 총신교회의 표어가 ‘지경을 넓히소서’였다.

끝으로 김영철 씨는 “코비드를 거치며 조금 나태해진 신앙이 이번 밀알의 밤을 통해 다시 회복되길 바란다”며 “자신의 최근 저서 <울다가 웃었다>의 제목처럼 이 어렵고 험난한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일에 더욱 쓰임 받고 싶다는 바람”을 표했다.

이번 밀알의 밤은 심상은 목사(남가주밀알 부이사장 OC교 협회장)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임동선 목사의 생애를 그린 창작 오페라틱 오라토리오 공연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월드미션대학교 고 임동선 목사 생애 무대에 올린다

창작 오페라틱 오라토리오 ‘지구촌은 나의 목장’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는 임동선 목사(1923-2016년)의 생애를 그린 창작 오페라틱 오라토리오 ‘지구촌은 나의 목장(Jesus for All Nations)’ 공연을 오는 21일(토) 오후 7시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에서 갖는다.

임성진 총장은 “고 임동선 목사께서 돌아가신 지 7년, 탄생 100주기가 여러 대형행사들을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다. 8월 영성세미나, 지난 주말엔 추모예배 및 기념관 개관식을 가졌다”며 “오는 10월 21일에는 임 목사의 생애를 그린 음악회를 한다. 임동선 목사의 삶은 기독교계뿐 아니라 이민 사회의 새로운 모델로 소개해도 부족함 없으신 분이시다.

(God’s Calling)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2개의 창작곡이 선보인다. 오라토리오에는 대사나 연기 없이 순수하게 코랄이나 독창으로 스토리를 전개한다. 이번 오페라틱 오라토리오에는 오케스트라(월드미션대학 오케스트라)와 합창단(라크마 콰이어)뿐 아니라, 4명의 성악가들이 출연, 오페라 요소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한다. 4명의 성악가는 임동선 목사 역에 테너 최원현, 황재순 사모역에 소프라노 신선미, 영적 전쟁 역에 베이스 장주인, 이승만 대통령 역에 테너 오우영 목사이다.

1945년 서울로 이주, 1949년 서울 신학교를 졸업하고, 여주읍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1951년 기독교대한 성결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1954년 사천 공군 비행단 군목을 거쳐, 1958년 텍사스 샌 안토니오 랙 크랜드 미 공군군목학교에서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1962년 초대 군종감(공군 대령)이 되었다. 1965년 다시 도미, 1970년 북침례교신학교에서 신학석사를 받았으며, 1970년 동양선교교회를 창립했다. 이후 93세까지 41개 국가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1,000여회 이상 설교했다. 연출을 맡은 클라라 신씨는 임동선 역을 맡은 최원현씨와 함께 뮤지컬 도산을 제작한 음악인이다. 신씨는 “전체적 구성은 오라토리오로 구성되었다. 이번에는 오라토리오로 만들고, 다음에 오페라 혹은 뮤지컬로 만들기 위해 오페라의 요소를 가미해서 만들어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는 포부를 밝혔다. 임동선 역을 맡은 최원현 씨는 “임 목사님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란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라며 “임 목사님이 하셨듯이 기도와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공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사역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다. 최선을 다해 감동을 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음악회는 월드미션대학교 오케스트라 45명, 월드미션 합창단과 라크마 콰이어 40명이 참여하는 대형 무대가 스펙타클하게 전개될 예정이다. 임장료는 없다. <박준호 기자>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Subscription form with fields for name, address, phone, and payment details.

E-mail 구독신청 : nychpress@gmail.com / lachpress@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A.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동덕여중고 동문회 주최 야외음악회가 예수커뮤니티교회에서 열렸다

동덕여중고 동문회 주최 야외음악회

동덕여중고 동문회 주최 동덕문합창단(단장 박영애, 지휘 김미선) 야외음악회가 ‘노래와 함께하는 짧은 추억여행’이라는 주제로 9월30일(토) 오후 5시 예수커뮤니티교회(담임 박경일 목사) 정원에서 열렸다.

선물은 음악이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장르를 뛰어 넘어 음악은 우리를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며, 추억에 잠기게도 한다”며 “오늘 음악회가 아름답고 평안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2023 다민족기도대회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현장이 되기를”

2023 다민족기도대회가 'Heal Our Land!'라는 주제로 10월1일(주일) 오후 4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렸다. 찬양팀의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로 찬양인도로 시작된 다민족기도대회는 심상은 목사(OC교협회장)가 개회기도 했으며 데이빗 안드레이드 목사(Line in the sand)가 환영사를 했다. 이어 한기홍 목사(대회장)가 메시지를 전했다. 한 목사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역사는 사건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 사건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 진다”며 “시대가 타락하고 황폐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셨다. 그 부흥을 갈망하고 헌신한 자들을 통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주셨다”고 말했다. 한 목사는 “우리는 그 부흥의 역사를 갈망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자리에 모였다. 하나님께서



2023 다민족기도대회 참석자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소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사는 미국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정해주시신 성을 선택하게 되었고 동성결혼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

노를 막아서는 한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그 한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부흥의 역사를 보면 반드시 기도하는 한사람이 있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든지 그들을 통해 부흥을 일으켜 주셨다. 패역한 세대가운데 성이 무너진 곳의 중보기도를 통해 부흥을 주셨다. 미국을 끌어안고 나 한사람의 사명의 부르짖음을 통해 나 한사람의 통곡의 소리를 통해 부흥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 강조했다.

이날 세 개의 기도 그룹이 2시간여 동안 기도회를 이끌고 회개와 감사, 화해와 연합, 청교도 신앙 회복, 이스라엘 회복, 부흥, 선교, 다음세대, 교육,

캘리포니아, 박해로부터 보호, 나라의 지도자들, 자연재해 방지를 위해서 참석자들은 합심해 기도했다. 이날 엘리샤 리차드, 가렛 리차드(Coastlands Life Church),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 제니 리차드슨 목사(Firepoint Church), 리오나드 옐로헤어 목사(Restoration Church), 빈센트 아코사 목사(Christ Citadel International Church),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 로버트 울프(유대탑비), 길버트 자라고자(New Beginnings), 데이빗 디아즈 목사(New Beginning Community Minisrty), 윌마베리 목사(아주사 스트리트 미니스트리), 구봉주 목사(감사한인교회), 스티븐 데이비스(RAD Ministry), 샤인 김 목사(GMI EM), 유수연 ABC통합교육위원, 세라김(TVNext.org), 에스더 정(JAMA), 조지 푸엔테스 목사(엘리트교회) 등이 참석하여 기도회를 인도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022년 대회처럼 많은 다민족 교회의 참석이 있었으며 기도인도자의 언어가 영어와 한국어, 그리고 스페인어로 동시통역이 되어 스크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집중력있는 대회가 되었다. 하지만 한인교회들의 참여가 예년에 비해 저조한 점은 개선되어야 할 여지를 남겨둔 대회였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은혜한인교회 2023 추계부흥성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2023 추계부흥성회를 '다음세대와 함께 성령의 날개를 타고 비상하라!'라는 주제로 5일(목)부터 8일(주일)까지 개최된다. 강사는 백동주 목사(목포사랑의교회 담임).

▲ 문의: (714)446-1000

생명의 전화 창립 25주년기념 행사

생명의 전화(대표 박다윗 목사) 창립 25주년 기념 행사가 7일(토) 오후 4시 돌로스교회(담임 황의정 목사)에서 열린다.

▲ 문의: (213)480-0691

싱글맘 자녀 후원 음악회

세계기독교어머니기도회(회장 이선자 목사)는 싱글맘 자녀 후원 음악회를 15일(주일) 오후 5시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에서 갖는다.

▲ 문의: (714)220-7660

두릅돈 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

두릅돈 장학재단(회장 조진휘) 장학금 수여식이 7일(토) 오후 5시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담임 남성수 목사)에서 열린다.

▲ 문의: (714)493-8607



샌디에고 주사랑교회 이요한 담임목사 취임식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샌디에고 주사랑교회 이요한 담임목사 취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하여 사명 다할 것”

샌디에고 주사랑교회가 지난 9월17일(주일) 오전 11시 250여명의 성도들과 축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1주년 기념예배 및 이요한 담임목사 위임식을 가졌다. 이요한 목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며 “주인 되신 분이 누구신지 알고 사역하는 목사가 되겠다”라며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열을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

나라” (잠25:13) 라는 말씀을 붙들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하여 사명 다해 사역하는 담임목사의 삶을 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마크 최 목사(뉴저지알고 사역하는 목사가 되겠다)라며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열을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

(박준호 기자)



큰빛교회 창립 24주년 기념예배에서 성영구 원로목사가 축도하고 있다

큰빛교회 창립24주년 감사예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길로 가자”

큰빛교회(담임 조현영 목사) 창립24주년 감사예배가 10월1일(주일) 오전 11시에 거행됐다. 조현영 목사 사회로 열린 창립 24주년 감사예배는 사이먼 서 목사가 2세대를 위한 기도, 김은희 장로가 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했다. 이어 조나단 장 목사의 특송과 박재만 목사(미라클포인트교회 담임)의 축하의 말씀이 있었다. 이어 전형명 장로가 성경복독했으며 생명샘 찬양대가 찬양했다.

신앙 생활하는 많은 사람 중에 교회를 다니는 처치맨인 자들이 많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신 것은 우리를 처치맨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 번째 십자가에 달린 자는 예수님이시다. 세 번째 십자가에는 충성, 헌신, 봉사, 확신이 있다. 세 번째 십자가로 가는 자는 확신, 믿음, 헌신, 충성이 있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들이며 그들에게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리고 자람의 면류관이 예비 되어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교에 이어 윤홍섭 장로가 교회연혁 보고했으며 주일업 교수(메테스다대학교)가 바이올린 특별연주, 찬양동대학 팀의 찬양울동이 있었다. 이어 김종대 장로(전 오렌지카운티한인회장)가 격려사를 전했다. 이날 예배는 본교회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했다. 이 강도는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이라며 “오늘날도

(박준호 기자)



하와이행복한교회 설립 10주년 감사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남실 목사

행복한교회 설립 10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

“날마다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

하와이행복한교회(담임 이남실 목사)는 지난 9월 17일(주일) 설립 10주년을 맞아 이남실 목사를 초청한 가운데 감사예배와 함께 임직식을 가졌다.

이남실 목사 사회로 드려진 예배는 김성조 장로 기도, 우클렐레 팀의 특주, 이남실 목사(한국 순지교회 원로목사) 설교로 진행됐다.

이남실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고전 10:31)이란 제목으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나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의 일군 삼으시고 거룩한 주님 사역에 수종들게 하시며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멘의 삶이 되어야 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 변화된 삶이 되어야 하며, 선한 행실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임직식은 오영숙 목

사(순복음 선한이웃교회)의 임직자를 위한 기도와 임직자 소개, 임직자와 교인들 서약, 임직패 증정으로 진행됐으며 노봉린 목사의 임직자들을 위한 축사 및 권면이 있었다.

이날 노봉린 목사는 “교회에서 여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오늘 직분 받는 이들은 귀한 것이다. 오늘 일꾼으로 세움 받은 모든 임직자들은 감동대로 하지 말고 기도하며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며 온유하게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날 이남실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임직자는 다음과 같다. △사무관사: 그레이스 유, 박정애, 엔젤 나카야마, 이아영, 이형순, 크리스틴 히로사네 △명예권사 추대: 김옥자 △서리집사 임명: 영자 다카에수 (이성자 기자)

세계선교교회 창립50주년 선교부흥회

“하나님은 에덴의 회복과 첫사랑의 회복을 원하셔서”

세계선교교회(담임 김창섭 목사)는 창립50주년 선교부흥회를 ‘하나님의 꿈’이라는 주제로 29일(금)부터 10월1일(주일)까지 원용수 선교사(미안마)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했다. 29일(금) 오후 7시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김창섭 목사 사회로 시작된 첫날 부흥회에서 할렐루야찬양대 찬양에 이어 원용수 선교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창 12:1-9)’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원용수 선교사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미안마에서 10년간 사역을 하게 된 이야기를 전하며 “모든 것이 막막했지만 하나님께 기도 매달리기 시작했다더니 막힌 것들이 해결이 되었으며 그분이 함께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해주셨다”며 “나 자신이 목사로 사역을 했던 시절과 현재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던 간에 분명해지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동일하다는 것”이라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 그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주인이 되시는 것이 그분의 꿈이다. 하나님은 에덴의 회복과 첫사랑의 회복을 원하신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에덴에서 누리는 모든 것을 지금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창섭 목사가 합심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집회는 김창섭 목사 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든든한교회 전교인가족수련회 첫날 저녁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남가주든든한교회, 전교인 가족수련회

“하나님의 나눔, 우리의 나눔”

남가주든든한교회(담임 김현인 목사) 전교인 가족수련회가 9월30일-10월1일까지 Anchor Retreat Center에서 ‘나눔’(막 6:41)이란 주제아래 은혜가운데 진행됐다.

첫날 오후 1시부터 진행된 프로그램은 주일학교와 Youth Group, 청년부와 성인 6조로 나뉘어진 가운데 조모임과 발표회, 게임 등으로 성도의 교제

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아침 시간을 통해 찬양대회를 갖고 온 성도들은 기쁨을 나누는 뒤 주일 예배를 드렸다.

주일 예배는 이완구 장로가 기도한 뒤, 김현인 목사는 ‘우리의 나눔’(막6:30-44)의 제목으로 본문에 나타난 오병이어의 사건을 제시하며 “오병이어의 나눔을 통해 우리들의 삶속에서도 나눔과 베품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박2일의 수련회를 통한 각조의 대결은 1조(조장 남성훈, 부조장 우은희)가 우승을 차지 했으며 MVP상은 박창범 집사가 차지했다.

(이성자 기자)



세계선교교회 창립50주년 선교부흥회에서 원용수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추석 맞이' 아름다운 동행

23년째 이어져온 교회의 외국인 근로자 섬김

“참 고마운 선물, 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순복음노원교회와 외국인선교회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팔인 성도 거드강) 순복음노원교회(이상용 목사)가 추석 명절을 맞아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들과 놀이공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예수 사랑을 전했다. 순복음노원교회

는 지난달 29일 교회의 외국인 선교회(진준오 목사) 주관으로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에서 '제23회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추석 명절 사랑 축제'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순복음노원교회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이상용 목사를 비롯해 외국인선교회 교역자, 장로, 자원봉사자 그리고 20개국에서 온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까지 모두 350여명이 참석했

다. 행사에 참석한 경기도 동두천과 양주, 포천 등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놀이공원에서 함께 추석 연휴를 보내며 잠시나마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잊을 수 있었다. 이 목사는 먼저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길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이어 “순복음노원교회는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여러분을 오늘 이곳에 초청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천국행 열차에 타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목사는 “순복음노원교회 외국인선교회 교역자와 장로님들은 23년 전부터 변함없이, 추석 명절이면 일가친척들과 함께 할 시간을 허나님께 드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드려 헌신해왔다”며 “추석뿐 아니라 설날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예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다”고 전했다.



탈북민 이끄는 '희망의 동아줄' ...

자발 기부 많아 재정자립 100%

이주배경한부모가족상담소는 비영리단체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조학모)의 부설 사회복지기관이다. 2009년 출범한 조학모는 초기 일반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활동을 진행했지만, 평일에는 생업으로 바쁜 취약계층 학부모를 위해 야간과 주말 상담 교육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 후 더 낮은 곳으로 시선이 머물면서 이주배경을 가진 한 부모 가족과 북한 이탈(이하 탈북) 청년 자립에 힘쓰기 시작했고, 2012년 이들을 위한 전문 복지 기관을 세웠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 내가 시작해서 다음 사람의 터가 돼 주자"는 마음으로 2009년 조학모를 맡은 서인숙(56·여 의도순복음교회) 대표가 2012년 자연스럽게 이주배경한부모가족상담소 센터장 역할도 맡게 됐다. 자비량으로 활동 하고

있는 서 대표를 지난 21일 서울 양천센터에서 만났다. 서 대표는 2007년 어느 날 갑자기 허리 통증으로 전혀 몸을 못 움직이게 됐다. 수술을 위해 대학병원에 연락하니 3일 후 입원이 가능하다고 했다. 꼼짝없이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서 식음을 전폐했다. 3일째 되는 날 간절함으로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불박이장 손잡이에 끈만 있으면 붙잡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겼다. 이야기를 들은 가족이 머리 끈을 불박이장 손잡이에 달아줬고, 그 끈을 붙잡고 기적같이 일어났다. 그 후 지금까지 허리가 조금도 아프지 않다는 서 대표는 "그때만 생각하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든다"며 "내가 잡고 일어섰던 큰처럼, 나도 탈북 주민들에게 '희망의 동아줄'이

돼 주고 싶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정부와 지자체 지원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주배경한부모가족상담소는 지금까지 정부지원금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재정자립도 100%로 서울에 3곳의 센터와 경기도 양평에 교육연수원을 운영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상담 및 교육, 자립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평일 주말, 출퇴근 구분도 없이 센터와 연수원을 오가는 서 대표의 열정에 감동한 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재정 지원과 재능기부이다.

현재 센터가 집중하고 있는 사역은 20대~30대 초반의 탈북 청년들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으로, 통일부나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탈북 주민 정착지원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들은 한국의 교육체계에 편입할 기회가 없어 혼자 대학 입학 준비하고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들을 돕기 위해 센터에서는 2021년부터 '매력시민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매력시민아카데미는 탈북 대학생 20명, 한국 대학생 4명 총 24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용 경제교육을 포함한 음악, 미술, 역사 등을 월 2회 총 12개월 과정으로 강의한다. 특별히 강의를 수료한 탈북 대학생에게는 실용 경제를 체험할 수 있도록 1인당 1000만원의 '시드머니'를 지급하고 있다.



“베트남 어린이 생명 살린 101번째 사랑”

신촌성결교회 올해로 101번째 베트남 심장병 어린이 수술 도와

서울 신촌성결교회(박노훈 목사)가 베트남 심장병 어린이의 수술을 101번째 도왔다고 27일 밝혔다. 2012년부터 선의 의료재단(이사장 여주기 권사)과 함께 심장병 어린이 수술을 지원해온 신촌성결교회는 올해 16명을 추가로 지원하면서 총 101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했다. 이번 지원에는 신촌성결교

회가 지난해 베트남에 세운 호치민신촌교회(윤복음 목사)도 힘을 보탰다. 신촌성결교회는 2019년까지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심장병 어린이를 한국에 초청해 수술비 항공료 체류비 전액을 지원했다. 이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2020년부터는 베트남에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교회 측

은 “베트남 병원에서 수술한 뒤 부가적인 비용이 줄어들면서 더 많은 어린이가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천성 심장병은 작기에 치료하면 평생 건강한 삶을 살아가 수 있지만 베트남 어린이 중에는 막대한 수술비용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심장 수술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상황이다. 수술을 통해 건강을 되찾은 용의 어머니 허웬 티 흥 농씨는 “행편이 어려워 어떻게 아이를 고칠까 막막했는데 우리 딸을 위해 헌신해준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신촌성결교회는 매년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헌금으로 베트남 심장병 어린이를 돕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역을 계속할 예정이다. 박노훈 목사는 “세상을 성기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온 유학생들에게 추석 맞아 '전통의 맛' 선보여

백석대·백석문화대 27일 행사에 12개 나라 유학생 100명 참가

백석대(총장 장중현)와 백석문화대(총장 송기신)가 유학생을 위한 추석맞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양 대학 국제교류처가 27일 충남 아산 외암민속마을에서 진행한 행사에는 12개 나라에서 온 유학생 1백여 명이 참가했다.

문화체험 행사는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한가위를 이해하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외암민속마을에서 한지부

채 만들기 전통 엿 만들기 강정 만들기 등을 체험했다. 투호, 제기차기 등 우리 전통 민속놀이도 즐겼다.

점심식사도 전통 한식으로 제공했다. 유학생들은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에서 명절 음식인 전과 산채비빔밥 등 전통 음식도 맛봤다. 김병준 국제교류처장은 “명절을 앞두고 우리 대학 유학생들에게 전통을 체험해보게 해주고 싶었다”며 “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문화체험이 다시 재개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몽골 출신 기독교학부 1학년 닌진씨(21·여, NINJIN)는 “전통 엿을 만드는 게 신기하고 재미있었다”며 “한국의 사랑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너무 달지 않은 맛이 너무 신기했다. 한국에 대해 많이 알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백석대와 백석문화대 국제교류처는 유난히 긴 올해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라면, 즉석밥 등 다양한 식료품을 전달해 유학생들이 연휴 중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배려했다.

최저임금법이 빈곤층에 미치는 영향

(1면에서 계속)

그러나 이것은 동종 업종들 사이에 가격 차이가 있을 때만 적용될 수 있는 가정이다. 비용을 더 지급하겠다는 기업은 고용에서의 우위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비용을 더 지급할 의사가 없는 기업들은 최저임금보다 노동력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해고하든지 또는 그러한 사람들은 고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다른 요인에 따라 이직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절대 고용되지 않을 사람들(저숙련 노동자, 새로운 이민자)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될 것이다.

2.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근본적인 주장은 그것이 낮은 기술력의 사람들을 차별한다는 것이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최저임금을 “고용주들이 낮은 기술력을 보유한 사람들을 차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요건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안토니 데이비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최저임금은 고용주가 숙련도가 낮고 교육이나 경험이 낮은 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모험을 기피하게 함으로써 이런 사람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막는다. 다시 말해, 근로자들은 교육, 기술, 경험, 그리고 자격을 기준으로 일자리를 얻기 위해 경쟁한다. 이러한 요인 중,

교육 수준이 낮고, 숙련도가 낮고, 경험이 적은 근로자들이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요소는 가격(임금)이다.

3. 최저임금 소폭 인상의 효과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이견을 보인다.

경제학자들은 15달러의 최저임금이 빈곤층에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3분의 1(38%)은 임금 인상이 빈곤을 증가로 이어지리라 생각하는 반면, 27퍼센트는 감소하리라 생각하고 있으며, 19퍼센트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16퍼센트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5명 중 2명(39%)은 최저임금을 7.25달러로 유지하거나 낮춰야 한다고 생각했고, 3분의 2(66%)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0달러 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의회 예산처는 국가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로 인상될 경우 실업률이 13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4. 최저임금이 빈곤 임금, 생활 임금, 가족생활 임금과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빈곤 임금, 생활 임금, 심지어 가족생활 임금 수준까지 오를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쟁과 혼란이 있다. 생활 임금과 가족 생활 임금은 지역적 차이를 보인다. 앨리스와 샌프란시스코를 대표적인 도시로 예를 보면 최저임금이 15달러이면 앨리스에서 생활 임금으로는 충분하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생활 임금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지역마다 비용이 다르므로 연방 최저임금이 국가 생활 임금을 결정하는 충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5. 최저임금의 인상은 빈곤을 감소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학자인 데이비드 뉴마크는 수많은 연구가 최저임금 인상과 빈곤 감소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 발견은 직관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 그들의 임금을 올리는 것은 그들의 가난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어느 정도,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놓치고 있는 사실은 최저임금이 소득이 낮은 가정이나 저임금의 개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최저임금을 버는 근로자와 데이빗 맥퍼슨은 “2007, 2008, 그리고 2009년 연방 최저임금의 인상을 직접적으로 영향 받은 21개 주에서, 경기침

체의 거시 경제적 결과보다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 때문에 젊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더 많이 잃었다”고 주장했다.

6. 최저임금을 실제로 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시간당 7.25달러 이하를 버는 근로자는 전체 시급 근로자의 1.9퍼센트를 차지한다.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 39만 2,000명은 시간당 7.25달러의 연방 최저임금을 정확히 벌었고 120만 명은 연방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 이들 중 다수는 팀으로 시간당 임금을 보충할 수 있다.

7. 전형적인 최저임금 노동자는 결혼 경험이 없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남부 백인 10대 소녀들이다.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압도적 다수는 젊다. 시간당 급여를 받는 취업 청소년(16~19세) 가운데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비율은 약 6퍼센트(25세 이상 근로자 중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비율은 약 1%에 불과)이다. 그들은 통계적으로 여성일 가능성이 크고, 결혼하지 않았으며,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 미시시피, 루이지애나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

8. 최저임금 규정은 역사적으로 이민에 대한 의욕을 꺾고

가난한 사람들과 소수자들을 억압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최저임금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우생학을 실천하는 것으로 보였다: 예비 이민자들을 억제하는 것과 고용에서 '고용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것이다. 최근에는 기업가이자 정치 활동가인 론 운즈는 최저 임금의 인상은 합법적이건 불법적이건 이민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태복음 20장은 어떻게 말하는가?

예수님의 노동자 비유가 최저임금법에 관한 것인가? 일부 사람들은 마태복음 20:1-16의 비유가 정부의 최저임금법에 대한 예수님의 반대를 보여준다고 믿는다. 그러한 이해는 성경을 완전히 잘못 해석한 것이다. 비유의 해석자로서 우리의 임무는 이야기의 관련 의미가 우리의 맥락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비유에서 돈과 경제를 자주 언급하셨지만, 어떤 비유의 요점도 결코 우리에게 통화정책이나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을 지시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비유에 사용되는 예화는 규범적인 것이 아니라 교환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불의나 악에 근거한 칭찬할 만한 예화를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심지어 같은 종류의 노동에도 불구하고 다른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 사람들과 협상하는 것이 본질에서 잘못된 것이 없다고 가정할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예시를 개인 윤리의 규범적 기준으로 받아들이려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또한, 15절의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는 구절은 더 넓은 맥락에서 이루어야 한다. 성경이 분명히 밝혔듯이, 우리는 돈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마가복음 12:17) 그러나 땅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좀 더 넓은 맥락에서의 해석은 무엇일까? 아마도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경제적 맥락이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이 비유에서의 한테나리온은 정부가 하루 노동에 관해 규정한 최저임금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성경에는 정부의 최저임금 제정을 직접적으로 지지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은 없다. 실제로 저스틴 테일러는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경제 수업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오래 일하더라도 같은 임금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예수는 사회주의자였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고 묻는다.

by Joe Carter, TGC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39)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고령화: MK, PK 들에 투자하십시오”

최근에 한 선교단체의 10년 이상 된 대표들이 모여 팬데믹 이후의 선교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주제가 다루어졌는데 그 가운데는 한국선교의 고령화 현상과 젊은이들의 지원이 부족함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이 단체에서 평균나이가 55.9세에 달하고 평균적으로 선교지에서 섬긴 연차는 13년이었다. 선교지 경력 10년 미만의 선교사들 가운데도 평균 나이가 53.9세인 것은 최저 나이가 39세, 최고 나이는 76세였다. 한국교회 전체 파송 선교사의 65.5%가 50대 이상이다. 그만큼 한국선교 운동에 있어서 고령화는 당연하고 시급한 문제로서 건강한 한국 선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선교인력의 고령화 상황은 심각해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몇가지 뚜렷한 이유들이 있다. 첫째는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고령화 현상이다. 점점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건강함으로 인하여 선교사들의 은퇴가 점점 늦어지고 있다.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강한 고령층이 두터워지는 것이다. 선교사들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더욱 한국의 대표적인 선교단체들 가운데 은퇴연령을 없이 함으로 인하여 장기근속 선교사들이 축적되어간다. 오히려 전체적인 평균연령은 해마다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서 선교사가 되

려는 사람들이 많다. 선교사 허입 연령의 증가가 평균 연령의 증가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시니어들이 조기 은퇴나 만기 은퇴를 하고 선교사로 헌신하여 사역을 시작하는데 좋은 자원들임에도 직접적인 선교사 연령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지만 시니어들이 젊은 선교사들을 지원해야 할 선교비 자원의 풀이 줄어드는 역할을 함으로 젊은이들의 선교 헌신을 간접적으로 막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보고들이 있다. 그러나 반론으로는 대부분의 시니어들은 교회에서 모금을 하지 않거나 자기와 가까운 지인들과 가족들의 후원을 받아 나간다고 하는 보고도 있다. 한 단체의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새로 허입된 선교사 28 유닛 가운데 55세 이상인 실버 선교사가 5 유닛이 되어 18%의 신입선교사가 실버라는 사실이 전체 선교사 나이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뚜렷한 인구감소가 선교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젊은이들이 줄어든 교회에서 신입선교사들의 탄생이 어려워진 것이다. 한국교회는 2016년 이후에 전체 선교사 숫자가 증가세를 멈추었다고 할 수 있다. 해마다 조금씩 증가되는 것 같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하여 조정되었는데 2019년 28,039명에서 2022년 말에는 23,596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한국사회 전반적인 젊은 인구 감소와 함께 교회 대학, 청년의

감소가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것이다.

한국교회 선교인력자원의 못자리였던 대학청년 선교운동의 쇠락이다. 선교한국 운동은 젊은이들에게 대학생 시절부터 세계선교를 꿈꾸게 하는 큰 역할을 감당하였다. 그러나 지난 십여 년 이상을 선교한국 대회 참석 숫자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였다. 이것을 한국교회 선교운동의 심각한 전조증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헌신율의 증감으로만 비교하여 단일한 대처를 하였다. 그렇지 않다면 모기기를 힘쓰지 않는 세대들을 자유 방목하였다. 끝어들이는 노력을 소홀히 한 면이 있다. 연합운동에서 단체별 운동으로 변해간 것이다.

이런 다양한 외부적인 이유와 함께 선교내부적인 요소들이 젊은이들의 선교참여를 독려하지 못하고 있다. 선교단체들마다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 반적인 무대책이 너무나 깊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젊은이들을 가장 많이 동원하고 있는 단체는 일반적인 단체들이 교제를 꺼려하는 단체이다. 그들의 특징은 선교에 전적인 헌신을 강조하여 위험하다고 까지 여겨지는 단체이다. 그런데 MZ 세대들이 가장 많이 모여들고 있는 것이다. MZ 세대에게 헌신을 강조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교회나 단체들이 속고하여 보아야 할 부분이다. 이 단체에는 미국에서도 다민족의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선교명령에 순종하는 모델들을 통한 도전, 조

직적인 동원전략과 젊은 세대에게 독특한 자율권을 허락하는 운영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젊은이들이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곳에 있는 자원들을 발굴하여야 할 것이다. 가장 가깝게 준비된 사람들은 선교사의 자녀들이다. 또한 부모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 가정과 평신도지도자들의 가정에서 선교사로서의 헌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러나 그들을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을 막는 커다란 이유는 너무 어렵게 생활하는 부모를 보고 자랐다는 것이다. 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반인들보다 헌신적인 선교사 부모는 존경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철이 들기 전에는 너무 어려운 환경을 물려주는 딱한 부모로만 보이는 것이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선교사자녀들은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모금을 하며 어렵게 사역을 감당하는 부모와 같은 방법으로 선교에 헌신하기 꺼려하는 것이다. 한 단체의 고등학생 이상의 MK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50%에 달하는 선교사 자녀들이 선교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방법의 선교사 헌신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제도적으로 선교사 자녀들을 선교사 후보자원으로 양육할 필요가 있다. 어릴 때에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녀들의 경우는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여 흔들리지 않고 잘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이 준

야 할 것이다. 선교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교회에서 이런 학생들에게 우선적인 장학금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주의 여러 교회들이 장학제도를 가지고 섬기고 있어서 감사한 일이다.

선교지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을 특히 지원해야 한다. 장학금 선발에서 고려할 것 가운데 하나는 부모가 있는 선교 현지에서 대학을 다니는 경우 장학금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는 원칙을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미주교회 장학재단들이 현실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다. 선교사 자녀들이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경우 한국 국적 자녀들에게 상당한 장학 혜택이 있다. 미국에서는 미국 국적이거나 영주권 소유자들에게 장학 혜택이 크다. 그런데 선교지 국가에서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MK 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선교지 국가에서는 공부를 잘해도 외국 인이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선교지 대학이기 때문에 학비가 조금 저렴할 수는 있지만 장학금 혜택 없이 학교를 다니는 것은 쉽지 않다. 더구나 선교지 국가의 대도시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자녀들이 집에서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어려운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자녀들을 대도시의 학교에 보낼 때에 과외로 큰 지출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학생들 자란 선교사자녀들은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모금을 하며 어렵게 사역을 감당하는 부모와 같은 방법으로 선교에 헌신하기 꺼려하는 것이다. 한 단체의 고등학생 이상의 MK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50%에 달하는 선교사 자녀들이 선교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방법의 선교사 헌신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제도적으로 선교사 자녀들을 선교사 후보자원으로 양육할 필요가 있다. 어릴 때에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녀들의 경우는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여 흔들리지 않고 잘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이 준

야 할 것이다. 선교사 자녀들의 은사개발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선교사 자녀들은 타문화권에서 독특하게 자라남으로 인하여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자라난다. 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개인의 은사를 존중하고 잘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이들이 부모처럼 직업을 전적인 선교사로서는 살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교에 온전한 헌신을 하며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원으로 세워지도록 해야 한다. 부모를 따라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은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다른 직업을 가졌다고 죄인의 심정으로 살지 않도록 대대적으로 할 것이다.

가까이 있는 MK, PK 들을 잘 양육하도록 해야 한다. 선교사의 자녀들처럼 목회자의 자녀들도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원들이다. 이들이 잘 양육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많은 PK, MK 들이 어려서 심각한 성장통을 경험하는 얘기들을 듣는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기간들을 지나고 나면 참 좋은 자료가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보다 크다고 할 것이다. 이들의 건전한 네트워크를 돕고 기도하며 격려하고 세워 나갈 때에 한국 선교의 고령화 문제도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이제는 MZ 세대가 자기들의 방법으로 자기들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가며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고 위험부담을 안고 파송하는 용기와 도전이 필요하다. 기성세대들이 주관하는 선교단체에 MZ 세대가 들어와서 적응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환경이다. 이제는 20대의 젊은이들 가운데 선교를 하겠다고 나서서 이들을 기성세대의 방법으로 훈련하고 기존의 제도 안에서 기존의 방법으로 사역하라고 할 때에 새로운 세대의 유입이 참으로 어렵다. 이들이 자유롭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격려하고 지원하는 교회와 선교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dr.yongcho@gmail.com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미국, 중동선교전략가)

27장(신명기 27-34장) 모세의 3차 설교를 중심으로(4)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끝에서 그리고 자신의 삶의 끝에서 3편의 '영적 잔소리' 고별 설교를 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 반복적으로 핵심되는 내용은 5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와 사랑하라'(신 6:5)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신 7:9, 10:12, 11:1,13,22, 13:3, 19:9, 30:16,20).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하나님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레 18:2-5)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신 15:4,5)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신명기 그의 3편의 설교에서 반복하여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살리라고 합니다(신 4:1,2,5,6,14,40, 5:1,6-21,33, 6:1-9,24,25, 7:11,12, 8:6, 10:12,13, 11:1,13,18-22,32, 12:1,32, 15:4,5, 17:18-20, 27:1,10, 28:9,13, 29:9, 30:1-20, 31:10-13, 32:45-47).

그리고 모세는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

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신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신 6:20-24)고 명백하게 전하라고 합니다.

너희 중에서 죄도 악도 제할 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죄'와 '악'은 제거되어야 합니다(신 13:5,11, 17:5-7,12, 19:19,20, 21:9,21, 22:21,22, 24:7).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신 8:18)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고(신 5:15, 15:15, 16:3,12, 24:18,22)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격조케 하던 일'을 기억하고(신 9:7)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신 6:12, 7:18,19, 8:11-20, 11:2) '하나님'도(신 6:12) '하나님의 언약'도 잊지 말라고 합니다(신 4:23,31).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주시고(신 10:16, 30:6/ 참고. 렘 4:4/ 롬 2:28,29), '안식일'(주일)을 주시고(출 20:8, 31:12-17, 35:1-3/ 민 15:32-36/ 신 5:15/ 참고. 겔 20:19-22) '절기'를 주시고(출 12:1-20, 34:18-26/ 레 23:1-44/ 레 16:29-31/ 민 29:7/ 신 16:1-17) 심지어 '음식'을 통해서도(신 16:3) '노래'를 통해서도(신 31:19-21) '기념물'을 통해서도(신 27:1-8/ 참고. 수 4:20-24, 24:26,27/

삼상 7:12), '하늘과 땅'을 통해서도(신 30:19, 31:28)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며 '가정 교육'을 통해서도(신 4:9,10, 6:4-9, 11:18-20, 31:9-13, 32:46,47)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하며 무엇보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신 31:26).

두려워 말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신 31:6)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죄악을 제하며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신 1:21,29, 3:2,22, 7:18,21, 20:1,3, 31:6,8).

키라 하심'의 의도는 지켜서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그럴수록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여 하나님께 '구원의 호소'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는 점점 '자격을 갖춘 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수 없는 자'임을 발견하고 더욱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드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로 시작해서 다시 출애굽기부터 달려온 여정에서 신명기까지 마쳤습니다.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종' 삼으신 하나님의 열심 이야기, 이제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앞세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야기로 계속 이어집니다.

hfamilyfa@gmail.com

다시 한번 신명기를 마치면서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에 대해 정리하면 하나님이 '규례와 법도'를 주시고 '지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하나님의 사랑 (호 1:1-9) 찬 304장

호세아 선지자는 북방국의 여로보암때의 영적암흑기에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가르쳤습니까? 첫째,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은 창녀와 결혼하라는 율법을 깨는 이상한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태하리라는 명령처럼 무조건적 순종으로만 응답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말, 라합, 밧세바같이 불

미스러운 혈통일지라도 그것을 통해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이 복음입니다. 둘째,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고멜의 반복적인 음란 행위를 책임지며 용서하는 사랑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 차례 불륜의 아이를 낳고도 바람을 피운 아내를 다시 데려오라는 그 사랑은 율법의 차원을 넘어 한없이 용서하는 무조건적 복음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화 회백의 은총 (호 1:10-2:13) 찬 279장

하나님은 배은망덕으로 떠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까? 첫째, 그의 큰 사랑으로 회복하십니다. 이스라엘(4), 로루하마(7), 로암미(9)라는 불륜의 자녀를 낳은 고멜을 용납하는 호세아를 통해 보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10절에 "그러나"라는 말이 바로 그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본래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친히 회복시키십니다. 이제 "로(not)"가 빠진 암미 (내 백성), 루하마 (내가 긍휼히 여김)의 회복과 죄된 습성을 막으시려고 장벽 쌓는 일(6-7)을 친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기애 친히 이루시는 큰 사랑의 구원이기에 아주 든든합니다. (렘 1:7)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해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 은혜의 날 (호 2:14-23) 찬 197장

원수에 포로가 된 이스라엘 회복의 날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첫 언약이 회복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날(15,19)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성취됩니다. 우상을 향해 "내 바알"이라고 하던 약한 마음이 중단되고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하는 진밀 관계로 치유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6) 그것은 창세기 3:15절의 원시 복음이 회복된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 구원은 전적

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 주님과 의 연합이 회복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반복해서 보이는 회복은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는 연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1-23) 그날,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포도주와 곡식과 이스라엘에 응하는 것처럼 제도적으로 은혜 베푸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이 행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히 6:1-2)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목 은혜의 근원 (호 2:21-22) 찬 229장

호세아를 통해 반복해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만이 은혜의 근원이라는 진리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 은혜의 주가 자기 백성의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호세아의 세 아들 이름 곧, 로루하마 (긍휼이 없음), 로암미(내 백성이 아님) 그리고 이스라엘(홀으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루하마, 암미 그리고 이스라엘로 바꾸어 졌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여실 때만 하늘, 땅, 곡식, 열매 그리고 이스라엘에 행동을 가져옵니다. (1:11) 언약 백성의 모든 삶은 하

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쳐집니다. 둘째, 하나님 중심주의가 만사의 근본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쉽게 떠난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힘 쓰지 않은 증거입니다.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의 해결책은 인위적 방법이 아니고 십자가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전 2:2) 이 십자가의 도를 따를 때 기적과 지혜도 얻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로 은혜의 강수를 체험해야 합니다.

금 구속의 사랑 (호 3:1-5) 찬 310장

본문은 왕이시며 절대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가? 첫째, 그들이 우상숭배를 즐겨할지라도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1-3) 다른 신을 섬겨 우상제물을 즐길 정도로 깊이 젖어있는 그들을 용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사랑입니다. (4-5) 사랑 관계가 단절된 사람처럼 영적 공허 속에 있던 그들이 하나님께로 스스로

돌아가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비로소 공평하여 스스로 돌아가는 참 회개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경외신앙으로 나가는 사랑입니다. (5) 참 회개는 참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듯이 (행 20:20) 타락한 이스라엘이 경외신앙을 회복하는 자리로 스스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시작한 회개와 믿음은 반드시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롬 8:30)

토 하나님 아는 지식 (호 4:1-10) 찬 88장

호세아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 지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 지식이 없이 진실과 인애를 결코 생각할 수 없습니다. (1) 신 지식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저주받은 이스라엘이 되며 영적 권위를 뺏기며(6, 9) 이미 얻은 번성이 욕이 되어버립니다. (7) 신자는 자기 힘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고 계시를 통하여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바로 알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생의 내용이며 구원의 골자입니다.(요 17:3) 더욱이 그가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렘 1:14) 그리고 보면 신자의 생애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얻는 과정입니다. 둘째, 그러면 어떻게 신지식을 회복하는가? 율법으로 돌아가(6) 그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10)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입니다. 등경 위의 둔 등불이나 옥토에 떨어진 씨처럼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으로서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를 알아감으로 영생을 즐기는 자로 살아갑니다.

교회음악 이야기(44)



윤임상 교수
(월미선대학교대학원)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To God be the Glory"

지난 6월 18일 한국에서 한 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한동안 한국 사회를 크게 동요시켰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대동맥 박리수술 명의로 알려진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주석중 교수(1962-2023)의 죽음이었습니니다.

교단들에서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성경 갈라디아서 1:4-5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을 본문으로 삼아 전체적으로 세 개의 절을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영광을 드리는 고백으로 그분께서 행하신 큰 일에 대한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가사로 만든 영광의 찬양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 내 모든 국민을 울릴 만큼 안타깝고 비통한 소식이었습니니다. 그동안 주교수의 대동맥 박리수술 성공률은 97.8%를 기록할 정도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기록입니다. 이에 동료 의료진들은 '대체 불가능한 인재'라고 높게 평가해왔다고 합니다. 국제 급성 대동맥박리 학회(International Registry of Acute Aortic Dissection)가 발표한 대동맥 수술 평균 성공률이 80~85%인 것을 고려할 때 주교수의 수술은 세계적 수준보다 훨씬 압도적인 성공률로서 그야말로 그 분야에 있어 세계 최고 권위자 중 한 분이었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하지만 필자는 주 교수께서 그런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로 평가되었던 것이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소 애간직하고 있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념,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한 문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동료 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다, 평소 자신의 만년필로 직접 쓴 몇 개의 기도문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그중 한 문장은 자신의 코너 벽에 있는 작은 계시판에 영문으로 쓴 기도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but what can I do in the actual healing process? Absolutely nothing. It is all in God's hands."(하지만 실제 치료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정성을 다해 환자를 수술하고 돌보지만 나의 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모든 회복이 가능합니다. 라는 신념을 갖고 "나는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무지의 고백을 드리는 그의 모습을 보며 필자는 놀랄 뿐이며, 우리의 찬송가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To God be the Glory)을 찬양하게 합니다.

일 절에서 구원의 생명문을 열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기회를 얻게 되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영생을 얻기 전에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는 생각과는 대조적으로 분명한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이어 두 번째 절에서 자신의 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한 범죄자와 같이 그 누구도 동일한 은혜로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어 세 번째 절에서 이 은혜를 계속해서 강조하며,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며 찬양과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서 인간의 노력에 대한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중요성을 분명히 이해한 위대한 하나님 사람이었습니다. 주석중 교수 또한 그의 기도문을 보면 자신의 노력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어 움직였을 뿐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리고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성자요, 영성 철학자들인 디오니시우스(Dionysius Exiguus, 470-544),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e of Hippo, 354-450) 그리고 쿠사의 니콜라우스(Nicolaus of Cusa, 1401-1464) 등은 "마침내 무지를 배우려면 많은 지식을 쌓아야 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필자는 페니 크로스비 여사나 주석중 교수가 동일하게 "모든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 내포되어있는 무지함의 고백은 그들 분야에서 많은 전문 지식의 깊이를 더해가며 결국에서 알게된 그들의 진실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곡은 19세기 미국의 3차 부흥 운동 시기에 가장 많은 찬송을 썼던 페니 크로스비(Fanny Crosby 1820-1915) 여사의 찬송 중 가장 대표되는 영광 찬송가입니다. 1872년 페니 여사가 곡을 썼고 윌리엄 하워드 도안(William Howard Doane, 1832-1915)이 작곡하여 1875년에 "Brightest and Best"에서 처음 출판되었습니다. 그 사이 1873-1874년에 영국에서 전개된 무디 전도집회에 아이라 생키(Ira D. Sankey, 1840-1908)가 이 곡을 소개하여 영국에서 많이 찬양되었고 점차 북미 지역에서는 불리지 않았습니니다. 이후 1954년 테네시주 내쉬빌에서 열린 빌리 그래함 전도집회에서 클립 바로우스(Cliff Barrows, 1923-2016)가 처음 사용하면서 이 곡이 미국내 각

값싼 은혜로 비추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지만 그것이 절대 값싸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서 더 열심히 살고 뒤기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지합니다."라는 진정한 고백을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입술의 고백으로, "그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립니다"라는 진실한 고백을 찬양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iyoon@wmu.edu



"사람은 기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침 - 대형 파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포드 애비뉴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리지필드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송찬우목사의 조각 글

그리스도의 향기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분주하게 나무와 나무, 꽃과 꽃 사이를 앓고 함께 날며, 춤을 추기도 하는가 하면 무엇인가 부지런히 찾기도 합니다.

어느새 우리 곁에 다가온 가을! 이 가을에 각종 새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저의 집 정원을

니 꽃이 난 자리에 꽃나무에서 쏟아지는 꽃씨들 때문이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잠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는 옛 말처럼 새들이 꽃밭에 쏟아지는 꽃씨들을 그냥 모른 채 할 수 없는 것 이런 생각입니다.

꽃이 있는 곳에 꽃향기가 있기에 벌 나비들이 날아들고, 꽃들이 피고 진자리에 떨어지는 여러 꽃씨로 인해 각종 새들이 날아들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꽃을 심고 가꾸는 것이 힘이 들긴 하지만 '산이 좋아 산에서 산다네'라는 말처럼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좋아 꽃을 더 많이 심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다짐을 하고 있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가 오십니다.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고후 2:15, 16).'

'그리스도의 향기' 너무 좋기도 하지만 한편 두렵게도 하고 떨리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앞에서 할 수 있으면 벌, 나비와 새들이 꽃들로 인해 그리고 꽃씨로 인해 저의 정원을 찾아오듯이 저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원, 교회를 찾아오는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지 하는 생각이 잡겨 붙습니다. 시애틀 임마누엘장로교회 원로목사 chansong_hase@hotmail.com

이성자기자의 **바이블 에세이**

네가 누구냐?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본다. 그리고 거울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것이다. 당신은 거울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는가?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실제로 존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신의 실제의 모습을 보는 것이 자신을 아는 길이다. 사람이 자신을 모르거나 어떻게 다른 사람을 알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모르거나 어떻게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누군가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라고 말했다지만, 우리는 반드시 다른

번 생각해보야 할 것이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왜 나는 그 일을 하는가?" "내가 하는 일은 과연 가치가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은 나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 우리는 이렇게 솔직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한결같이 부정

난 척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실제적인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 "나는 000의 남편이다." "나는 000의 아내이다." "나는 000의 아버지이다." "나는 000의 어머니이다." "나는 000의 아들이고, 딸이다." "나는 00교회의 교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등의 솔직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진솔하게 자신의 실재를 고백하는바 자신의 진실한 모습 가운데서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나는 과연 나답게 살았으며 또한 나답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요 1:19)

사람을 제압하고 이기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다른 사람과 나를 알고자 함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를 바로 하기 위해서 나를 알고자 하는 것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바로 살 수 있다는 말인가?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네가 누구냐?"고 질문했듯이, 우리는 자주, 아니 날마다 나 자신에게 "네가 누구냐?"고 물어보아야 한다. 이것을 철학에서는 실존적인 질문이라고 한다. 자기의 실존 인식을 위한 고뇌가 섞인 질문을 통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실존에 도전해야 한다는 뜻이라 생각된다. 자신에 대한 실제적인 질문에 대해서 나는 나 자신에게 무어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한

적인 대답을 했다. "그러면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고 되물었다. 요한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몹시 고민하며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 이 대답을 들은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의 우리도 솔직히 세례 요한의 이상한 대답에 고민하게 된다. 왜? '소리'는 인격체도 아니고 영구성도 없는 일시적인 무기체이기 때문이다.

무수히 알 수 없는 정보가 쏟아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을 착각하고 살 때가 많다. 어느 때는 터무니없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지나치게 위축되어 자신을 과소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너무 잘난 척해서도 안 되고 너무 못

게 살고 있는가? 자신의 인간학적인 신분과 사회학적인 자리, 그리고 신앙적인 사명을 자각하고 자신의 신분에 어울리는 생각과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 자신의 말과 행실 속에 '나답지 못한 말과 행위는 없었는가?'를 솔직하게 살펴 보면서 좀 더 정직한 사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기에 사람의 참 가치가 있다.

세례 요한은 한낱 '소리'로서의 사명을 다하였다. 그는 유대 광야에서 '소리'로서 민중을 깨우쳐 회개시켰다. 그는 '소리'로서 헤롯의 불의를 책망하다가 순교를 당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것은 세례 요한처럼 '올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기/도/칼/럼



박현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통곡하는 모로코와 리비아

지중해 연안 북아프리카의 모로코와 리비아가 통곡하고 있습니다. 울부짖고 있습니다. 지난 9월 8일 모로코 아틀라스산맥 지역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3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매몰된 사람은 더 많습니다. 9월 10일에는 리비아에 강력한 태풍 다니엘이 일어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두 개의 댐이 무너지면서 인근 도시와 마을을 덮쳤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휩쓸려 지중해로 떠내려갔습니다. 사망자가 1만 명 이상, 이재민도 수 만 명입니다.

모로코는 정부의 무관심과 극장 대응으로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리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다피 정권 몰락 이후 동부의 국민군과 서부의 통합정부가 싸우는 가운데 무정부 상태입니다. 사실상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모로코는 여진이 계속 일어나 불안합니다. 지진과 대홍수가 지나간 자리는 참혹합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부상자들의 고통, 집을 잃고 거리에 나선 자들, 생계가 막막한 주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강진에 무너진 모로코, 물 폭탄에 잠긴 리비아는 시신 수습조차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복구 능력을 초월한 대재앙입니다.

모로코와 리비아는 과거에는 기독교가 꽃을 피웠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7세기 아랍의 침략으로 이슬람화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랍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에 속해 있습니다. 아랍어가 공용어입니다. 대부분 이슬람교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모로코는 천주교를 포함해 기독교인 1%입니다. 리비아에는 0.2%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완전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성경책도 마음껏 소유할 수 없습니다. 개종 시에는 엄청난 박해가 따릅니다.

통곡하는 북아프리카 땅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고군분투하며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통곡하는 그 땅을 위해 통곡하는 중보자가 일어나야 합니다. 주여, 그 땅에 통곡의 소리가 끝나고,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다."(시편2:8)

bible66@gmail.com

2001~2023 뉴욕권사선교합창단 New York Extenters Missionary Chorus Concert, 2023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작곡 | Haydn, Franz Joseph 편곡(여성4부) | 이가영 일사: 2023년 10월 22일 (주일) 오후 6시 장소: 프라미스교회(담임목사 허연행) 130-30 31st Ave., Flushing, NY 11354 후원 한국일보 뉴욕교회 뉴욕효신장로교회 프라미스교회 뉴욕신광교회 공연문의 917-648-1876, 917-658-3181 이 음악회의 수익금은 불우이웃 돕기와 선교기금으로 사용됩니다. 화환은 정중히 사양하며 대신 기금 모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초대